

한기총 “친 가톨릭 행보’ WEA 힌켈만 부의장, 즉각 사임하라”

성명 통해 촉구... “복음주의인 것처럼 포장해 한국교회 기만”

세계복음주의연맹(WEA)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내년 서울총회 개최를 반대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이번엔 프랭크 힌켈만(Frank Hinkelmann) WEA 부의장의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한기총은 12일 “WEA 프랭크 힌켈만 부의장의 친 가톨릭 행보를 밝힌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예배에 WEA 측 대표로 참석했던 프랭크 힌켈만 부의장이 루터교 목사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는 2015년 5월 17일, 루터교 목사(Pfarrer im Ehrenamt)로 안수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루터교는 WCC 회원 교단으로, 독일 루터교 교회들은 동성애자의 성직과 동성애자 커플의 축복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루터교와 가톨릭은 2016년 완전한 일치를 위해 대화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한기총은 “그뿐만 아니라 힌켈만 부의장의 친 가톨릭 행보가 확인되는 사건이 있다”며 “2016년 린츠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의 날’은 추가경의 초청으로 가행되는 에큐메니컬 리셉션인데, 그는 이 행사

에 주최자 중 하나로 참석했고, 이를 통해 ‘관계가 성장, 발전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교파를 초월하여 협력할 수 있음을 말했다’고 했다.

또 “힌켈만 부의장은 ‘Friendship’을 강조한다. 로마가톨릭(Roman Catholic church)이나 정교회(Orthodox church)가 우세한 지역에 가면 그들과 우선 친해져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이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로 변모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실제, 힌켈만 부의장은 종교 다원주의적 행보로 논란이 됐던 WEA 전 총무 토마스 슈르마허가 세운 학교, Martin Bucer Seminar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학과장, 총장으로 재직하며, 슈르마허 전 총무와 다양한 공동 학문 작업을 펼쳐왔고, 슈르마허 전 총무는 오랫동안 WEA 신학위원장, 총무로서 WEA의 신학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조직위가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힌켈만 부의장은 토마스 슈르마허를 WEA 총무로 선정한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었는데, 사실상 힌켈만 부



지난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CCMM비딩에서 열렸던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감사예배에서 조직위 및 WEA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맨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프랭크 힌켈만 WEA 부의장 ©기독일보 DB

의장과 슈르마허 전 총무는 한 팀으로 움직였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에서 ‘WCC와 WEA는 선교적 입장을 같이 하는 협력관계라며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의혹을 받는 슈르마허 전 총무가 사임한 것으로 조직위가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힌켈만 부의장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며 “복음주의인 것처럼 포장하여 한국교회를 기만한 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이로써 조직위원회의 WEA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해명에 대해서도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힌켈만 부의장의 친 가톨릭 행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WEA 총회 개최를 위해 서명한 부분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파기하라. 결코, 총회가 우선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WEA 총회 문제로 한국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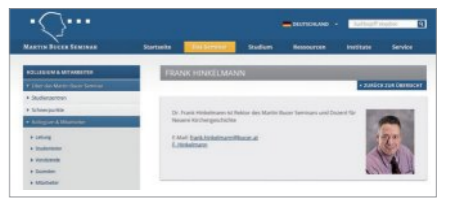
이들은 “그럼에도 WEA 총회를 취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며, 심지어 행사



WEA 프랭크 힌켈만 부의장(왼쪽 두 번째)이 토마스 슈르마허 WEA 전 총무(맨 왼쪽)와 함께 찍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를 명분으로 국가 예산을 받으려 한다면,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며 “예산 관련 당국은 WEA와 관련한 예산안이 상정된다면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 통과시킨다면, 한국교회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행사의 귀결점은 재정 지원인 만큼 교회 당회도 재정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라. 자칫, 이단성 의혹,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의혹이 있는 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한 교회로 낙인찍힐 수 있는



WEA 전 총무 토마스 슈르마허가 세운 학교인 Martin Bucer Seminar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WEA 프랭크 힌켈만 부의장 ©학교 홈페이지 캡처

을 생각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 “한국교회 연합·회복·부흥 위해 최선”

제8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 드려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제8대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12일 서울 서대문교회에서 열렸다.

박병선 목사(공동대표회장, 예장 합신 총회장)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에선 류승동 목사(기성 총회장)의 기도, 김선 목사(예장 개혁신 총회장)의 골로새서 2장 6-12절 성경봉독 후 소강석 목사(명예회장,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가 ‘넘버 원이 아닌 온리 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축도는 전계헌 목사(명예회장,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가 했다.

소강석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교총 대표회장 자리는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깃누르는 자리”라며 “나의 명예와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 한국교회의 공의를 위한 ‘온리 원’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박아 말씀과 성령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진 축하와 인사 시간에서 영상으로 격려한 이승희 목사(명예회장,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는 “대한민국 사회는 위중한 때를 맞이하였으며, 이때 한국교회의 책임과 한교총의 역할이 분명하다. 대표회장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혜로 이 사회를 견인하고 예언자적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축사에서 이철 감독(명예회장, 기감 직전 감독회장)은 “대한민국은 엄중한 상황이지만,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했고, 류영모 목사(명예회장, 예장 통합 증경총회장)는 “연합사역을 통해 한국교회가 위대한 일을 하며, 정치권과도 기독교적 가치로 협력하고 때로는 건전한 비판을 하며 한교총의 발자취가 역



한교총 제8대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취임 축하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총

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광식 목사(예장 합동 증경총회장)는 “한교총 신인 대표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한교총의 연합을 위해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는다. 교단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

장 합동 임원회에서 축하패를 증정했으며, 한교총과 예장 합동총회, 울산명성교회가 꽃다발을 증정했다.

김종혁 대표회장은 인사를 통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돌파한 신앙의 선조들이 계셨



한교총 제8대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취임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총

다”며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라는 말씀을 붙잡

고, 먼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회복,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회장은 “이를 위해 기도와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영 기자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
13년 연속 1위, 에몬스

약 7만 7천여명의 제품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및 전문가 조사 결과,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 '가정용가구 부문 13년 연속 1위' 기업 선정







수기총 등 “비상계엄 원인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

‘대국민 호소문’ 발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한국교회연회 등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12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수기총 등은 이 호소문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원인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라며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장관, 검사 등 물론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다치는 대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스무 번이 넘는 탄핵 시도로 국정을 마비시켰던 것이다.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이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게마다 법 집행기관인 검찰·경찰·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예산의결권은 국회 권한이지만,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기총 등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풍전등화(風前燈火) 상태이다. 중북세력과 좌익세력들은 지금도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선전, 선동으로 서서히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잠식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고로 지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세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옹호하며 대한민국을 해체, 파괴하려는 가짜 진보, 좌익세력 간의 최후 대전”이라며 “광우병 난동을 부렸던 세력들이 다시 광장에서 흑세무만하며 현 정부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 이 싸움에서 패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이유를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되도록 소상히 밝힘과 동시에, 통수권자로서 변함없이 책무와 권한을 끝까지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서울대 트루스포럼 “왜 이재명과 민주당엔 침묵하나?”

대자보 통해 지적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왜 이재명과 민주당엔 침묵하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10일자로 게시한 대자보에서 “부정선거에 관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국민의 검증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선거에 대한 검증이 극도로 부패한 선관위에 사실상 일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소송을 통한 규명도 국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이점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직 대통령마저도 사실상 계엄으로 밖에는 선거에 대한 검증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서울대 트루스포럼

을 시도할 방법이 없다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우리의 선거, 정말 안전한가? 이재명 형사사건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 몇 명인지 아는가? 대법관

과 선관위원장 등 역임한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대법관, 우리의 재판과 선거는 정말 공정했는가?”라고 물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선거법과 형법까지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는가? 입법폭제가 아닌가? 국정원이 간접도 못잡게 만든 민주당은 도대체 왜 그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면 북한과 함께 남한의 반동과 미제를 처단하겠다던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라고도 물었다.

그러면서 “생소한 계엄선포에 흥분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재명과 민주당엔 침묵하는가? 맹목적인 분노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진영 기자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나름 그 이유를 찾은 것은...”

부산 호산나교회 유진소 담임목사(사진)가 최근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쓴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상황에 대한 분노로 생각과 판단이 왜곡돼 비상계엄을 선언했는지 모른다고 추측했다.



처음 계엄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는 유 목사는 “저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 선포라는 이런 일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

해가 되지 않아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이유를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나름 그 이유를 찾은 것은 윤 대통령이 그 마음이 많이 화가 나고 억울한 가운데 왜곡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었다”며 “최근 정치권 뉴스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소식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가 ‘격노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어떤 사안들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 대단히 화를 많이 내셨고, 그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터트렸다는 그런 것”이라고 했다.

유 목사는 “정치적인 상황이 어렵고 여소야대의 정국이다 보니 마음대로 되지 않고 화가 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화가 많이 나고 억울하고 답답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내면이 틀어지고 그 중심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많

이 말하듯이 ‘햇김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 분노가 생각과 판단을 왜곡시킨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꾀계에 넘어간 것이니까”라며 “분노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간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했다.

유 목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자기 생각에는 정말 정당한 그런 것이라고 해도,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분노하고 있으면, 그것은 죄와 악에게 당하고 있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분노를 십자가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화가 나고 억울할 때, 그렇게 분노하는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할 수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종지협, 비상계엄 사태에 “국민 평안과 헌법 질서 회복” 촉구

“민주적 해결책 모색과 국민 고통 경정” 강조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 투입, 국회와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 의결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가 입장문을 통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평안과 헌법 질서의 회복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지협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전개된 혼란 상황이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며 “국정운영의 본질은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을 불안하게 한다며,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문제의 원인이 발생한 곳에서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지협은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상기하며, 이는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입장문에서는 종교계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종지협은 “우리나라 종교계는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며,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종지협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각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연대를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뜻을 밝혔다. 공동대표회장으로는 대한불교조계종 진우스님을 비롯해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의 지도자들이 참여했으며,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사영 목사)가 이름을 올렸다.

종지협은 입장문의 말미에서 “국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일상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국 기자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지향 에너지 LX 인터내셔널 글로벌 스마트 물류 LX 판토스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 하우스 신소재 개발 LX MMA 차세대 반도체 LX 세미콘 유리 솔루션 LX 글라스

LX
LINK FOR NEXT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회개 부정하는 구원과 교리와 연관”

기소선 탈퇴자 “합창단서 잦은 폭행... 심지어 자살 시도 사건 발생도”

인천기쁜소식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김모(17) 양 사망 사건이 구원과 교리와의 연관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회개를 부정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한 구원과 교리가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그러시아스 합창단장 박모(52) 씨와 관련 혐의자들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 사망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1년 전 기소선을 탈퇴한 L씨는 본지에 “합창단장 박모 씨 (단원들을) 많이 폭행하는 걸로 유명하다. 언제는 자기 말을 안 듣는다면 나의 친구 단원을 나체 상태로 때린 적도 있다”며 “합창단장과 지도부 폭행과 폭언으로 도망친 단원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제가 아는 기소선의 한 친구는 합창단장 박모 씨 비서로 차기 단장의 길을 걷고 있었다가, 단장이 하도 때려 무

릎이 나갈 정도였다”며 “그런데 아빠가 기소선 목사니까 기소선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마음 고생을 하다가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박모 씨 및 지도부의 구타에 합창단원들이 팔이 부러지는 등 학대를 당하면서도 순응했던 이유는, 박모 씨가 반발하는 단원들에게 ‘불신자’ ‘사탄’ 구원 받지 못하고 복음의 일에 합당하지 못하다 등 위협적인 말로 자신과 지도부에게 절대복종을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L씨는 “기소선은 선한 행실이 가식이라고 말한다”며 “기소선에서 단 한 번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뒤에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가르친다”고 했다. 이 씨는 “처음엔 순수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기소선 죄사함 교리를 배우면서 무례하고 악랄해지는 모습도 많이 봤다”고 했다.

구원파에서 탈퇴한 전 한국침례신학대 교수 정동섭 박사는 “구원파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죄사함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된다”고 가르친다”며 “구원과 교리대로 의인이 됐으니 살인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등 육체로 저지른 죄는 영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정 박사는 “기소선은 삼계명을 어기는 자범죄는 죄가 아니라며 오히려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한다”며 “이러한 교리적 가르침이 인천 기소선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말하는 기쁜소식은 죄사함을 깨닫고 의인이 되면 죄를 지든 말하든 자유롭다는 주장으로, 소위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이버 기독교 집단”이라며 “현대판 영지주의가 기소선으로, 죄의식을 제거하는 무서운 집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신분상 죄인이 칭의(稱義)를 받은 것일 뿐, 의인이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성경은 신자에게 회개에 따른 구원 이후에도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 있게 반복적 회개를 통해 성화의 길을 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국회 성탄트리 점등...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난제 해결”

국회조찬기도회, 2024 성탄점등식 및 국회기도회 개최

국회조찬기도회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4 성탄점등식 및 국회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기도회, 성탄트리점등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도회는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이 대표기도를 드렸으며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이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 전 한교총 대표회장)가 ‘카르네우스 이야기(요한복음 11, 3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소 목사는 “카르네우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성욕신이라는 뜻이다. 성욕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벅찬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의 찬양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뿐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국회조찬기도회,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이 흐를 것”이라며

“지금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여야가 하나 되어 모이고 기도할 때 난제들이 해결될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순서에서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총무)이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 발전을 위해,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이 ‘대한민국과 국회를 위해라는 기도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이어 소강석 목사가 축도했으며 제헌국회기도문패전달식, 인사 및 사랑의 쌀 증정식을 끝으로 기도회 순서가 마무리됐다.

이어진 성탄트리점등식은 국회분수대에서 진행됐으며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송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캐럴을 들으면서 여야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저는 기독교 정



국회조찬기도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4 성탄점등식 및 국회기도회를 개최했다. ©최승연 기자



트리 점등식이 진행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치인이지만 항상 정치에 있어서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좋은 일을 행하고 선을 장려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반기독교적인 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송기현 의원은 “현재 국가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어느 때보다도 귀한 은혜가 되길 바라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그는 “예수님은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화려한 공간이 아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며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힘든 상황이지만 힘을 합쳐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반기독교적인 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최승연 기자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 새롭게 비치는 성탄의 이 빛이 마치 어둠이 짙을수록 더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려울 때 이 빛을 비춰져서 희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빛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점등식이 진행됐으며 장현일 목사(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전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최승연 기자

추상화로 탄생한 오병이어와 성경말씀... 「LOGOS」 기획전

김지혜·박혜성 두 작가가 만난 하나님을 '보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기획전 「LOGOS 로고스」 2인전이 지난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트 스페이스 엑스에서 열린다. 작가 김지혜와 박혜성의 작품 44점을 통해 은혜의 경험과 개인적 사유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다.

로고스는 '말씀'을 의미하는 헬라어이다. 전시는 형상 중심의 전통적 예술에서 벗어나, 두 작가가 각자 절대자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 체험과 내면의 사유를 중심으로 신성함과 인간의 내면적 울림을 제시한다.

작가 김지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고 자연의 움직임과 빛의 흐름을 추상적인 색과 형상으로 표현한다. 버려진 생명들의 강인함, 빛의 찬란함, 바람의 흔적 등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완성한다. 김 작가의 작업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따뜻함과 생명력을 전달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번 전시에 18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김 작가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관람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가장 큰 욕심이라면 그림으로 세상에서 작게나마 위안과 위로를 받으시면 한다. 세상이 안아주는 듯한 포근함을 받게 된다면 더없이 기쁘겠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 작가는 “진실되고 싶다는 것이 나의 계획이자 바람이다. 진실함과 간절함이 다른 보탬없이 선과 색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지혜(1983-)는 호주 멜버른 대학교 순수미술학과와 시드니 대학교 테일러스 컬리지를 졸업했으며, 현재 대한민국과 호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대 미술 작가이다. 현재 정서치유 심리치료 강사로도 출강 중이다.

작가 박혜성은 성경의 말씀을 캔버스 위에 직접 필사해 '묵상'과 '기도'를 예술적 과정으로 승화시킨다. 성경 텍스트는 다층적인 물감의 레이어와 추상적 형상으로 재구성되어 초월적 빛과 영적 에너지를 시각화시킨다. 박 작가는 작품을 통해 관람자에게 신과의 교감에서 비롯된 평안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에



기획전 「LOGOS 로고스」가 12월 15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트 스페이스 엑스에서 열린다. ©아트 스페이스 엑스 인스타그램



작가 김지혜가 대표작 '오병이어의 기적, 그 찬란한 순간' 작품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박혜성 작가의 '베드로의 편지, 인내의 열매(베드로전, 후서)' ©아트 스페이스 엑스 홈페이지



박혜성 작가의 대표작 '로고스의 영광(요한복음)' ©박혜성

총 26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박혜성(1975-)은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와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박사를 졸업했으며,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M.Div.)을 전공했다. 성경 66권을 캔버스에 필사하며 빛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업이 그의 사명이다.

최건수 이미지 비평가는 “로고스는 예술의 주제가기도 하고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중세미술이나 르네상스 미술은 완벽한 하나님의 예술”이라며, “그러나 근대에 오면서 종교적 의미의 로고스는

퇴색했고 철학적 의미의 로고스(이성 혹은 합리)로 대체됐다. 그럼에도 종교적 문제를 예술과 접목시켜야 한다면 매우 사적인 관심과 체험으로서의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두 작가는 성경에서 받은 은혜 혹은 체험을 매우 사적인 이미지로 환원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박혜성은 마치 모세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 김지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그러나 아름다운 세계를 통해서 신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평했다. 백선영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11월, 전국 9개 교회서 성도 487명 생명나눔 약속

11월, 전국 9개 교회서 성도 487명 생명나눔 약속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지난 11월 한달 동안 전국 9개 교회에서 진행한 '생명나눔예배'를 통해 487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서약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생명나눔예배에 참여한 교회는 변동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를 비롯해 담양고서교회(담임 박규철 목사), 부산명성교회(담임 황윤규 목사), 서귀포강변교회(담임 최영남 목사), 예수사랑교회(담임 이성복 목사), 예수사랑교회(담임 지성래 목사), 우리한신교회(담임 이성복 목사), 제자로교회(담임 황성건 목사), 하늘비전교회(담임 오영택 목사)까지 9개 교회이다. 교회들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동참했다.

지난 11월 10일 주일, 서울 강북구 변동에 위치한 변동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며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변동제일교회는 생명나눔예배를 한 주 앞두고 교회의 모든 장로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예배를 계기로 총 262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교회의 창립 60주년을 의미있게 만들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상임이사 김동업 목사는 생명나눔예배를 함께 드리며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변동제일교회 성도들이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따뜻한 손길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변동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는 "6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마지막 순간, 생명을 나누는 장

기증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된 종아, 참 잘했다'라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지난 11월, 생명나눔 운동에 헌신한 한국교회와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생명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더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일산신광교회 등 전국 7개 교회에서 성도 598명이 생명나눔예배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서약했다.



변동제일교회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며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왼쪽 변동제일교회 김정호 목사, 오른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상임이사 김동업 목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에드보켓코리아, '법조아카데미' 세미나와 인턴십 개최



크리스천 법률가와 로스쿨생 및 예비로스쿨생 등 법조지역에 종사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로 '법조아카데미' 세미나가,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에 걸쳐서 서초동 소재 로고스 등 협력 로펌 여러 곳에서 인턴십

이 열린다. 법인권정차경제 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이번 세미나 및 인턴십은 크리스천 법조지역 종사자 및 관심자에게 유익한 콘퍼런스가 될 예정이다.

참가자 특전으로는 에드보켓코리아 아카데미 수료증, 협력 로펌(로고스 등) 인턴 경력 부여, 평가 우수 수료자 장학금(총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에드보켓코리아(Advocate Korea, 이하 AK)는 아시아 법률가의 교류 협력을 통

한 법의 지배와 인권의 보장, 양심과 종교의 자유 확대 실현을 추구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맞이하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법률지원과 창조론에 입각한 법사상의 연구·보급실현을 위해 설립됐다.

2001년 설립돼 6백여 명의 기독교 법률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AK는 '하나님의 법 열망'에(Doing Justice With Compassion)를 모토로 출발했다.

AK는 '법을 통한 선교'라는 비전을 감

당하고자 ▲법의 지배, 인권 보장, 종교의 자유 확대 ▲기독교법사상 고취, 국제교류, 장학사업, 법과대학 설립 ▲한국법률가 파견, 국가 건설기초사업 추진 ▲해외선교사 법률지원 네트워크 구축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및 개발도상국 법률문화발전 지원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법조인들은 범조계 인사들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인물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AK의 초대 총재, 그 뒤

를 이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제2대 총재 전용태 변호사, 그리고 제3대 총재로 김수근 변호사, 제4대 총재 심동섭 변호사가 모임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는 또 현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어 법을 통한 선교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AK 회장 심동섭 변호사는 "AK는 세계 선교의 꿈과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범조지역을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기독교인 모인, 특히 아시아 각국의 종교, 정치, 경제 상황 등에 주목하고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자 매년 열리는 에드보켓 아시아 법률가

대회(Advocates Asia Conference)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온 땅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에드보켓코리아를 소개했다.

아울러 AK 심 회장은 "양심과 신앙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인권변호사 단체인 에드보켓코리아가 '법조아카데미'를 준비하고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법조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법조지역을 지원하는 로스쿨생 및 청년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쪽방 독거어르신 위한 '성탄절 사랑의 밥사랑과 선물전달식'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및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섬기는 소셜서비스 NGO(사)월드뷰티엔즈(회장 최에스터 신한대교수)와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이 장석교회(담임 이승현 목사)와 안재활전문기업 비오신코리아(주)(대표이사 강종욱)와 함께 최근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쪽방촌 독거어르신 초청 '성탄절 사랑의 밥사랑과 선물전달식'이 열렸다. ©해돋는마을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쪽방촌 독거어르신 초청 '성탄절 사랑의 밥사랑과 선물전달식'이 열렸다. ©해돋는마을

계 희망의 빛이 되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원 대흥동장은 "특별히 장현일 목사님께서 1인 가구가 64%가 넘는 이 지역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랑의 선물 전달과 말벗 되기 등,

사랑나눔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축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장민혁 사무총장(월드뷰티엔즈), 장민욱 사무국장(해돋는마을), 최세진 영양사, 김은희 조리사, 구훈 봉사단장 외 이강학 최세연 전혜숙 조승희를 비롯한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밥퍼사역에 동참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배달했다.

(사)월드뷰티엔즈와 (사)해돋는마을은 매일 밥퍼사역을 하고, 엘드림노인대학을 통해 시 쓰기, 실버영어, 전통국악교실 등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강의와 우울증 및 치매예방, 고독사 제로를 향한 고독생 프로젝트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린닥터스재단, 2024 사랑나눔 김치나눔 행사 진행

온그룹 임직원 200여 명 참가... 7kg짜리 1,150박스 취약가정에 전달

온종합병원, 온사회공헌재단 등 부산 온그룹과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은 최근 부산진구 당감2동 온종합병원 타워주차장 앞에서 부산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나기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2024 사랑나눔 김치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마련해온 이 행사는 올해로써 15번째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온그룹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4 연말 김치나눔 행사장에서는 7kg짜리 1,150박스(3천포기 상당)

를 부산지역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무료급식소, 노숙자 돌봄기관, 복지시설 등 취약가정에 전달했다.

특히 사단법인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장대현학교 등 탈북민들은 물론,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랑 잇기' 행사로 수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홀몸어르신들에게 김장김치를 직접 나누었다.

그린닥터스재단 정근 이사장은 "추운 겨울이 본격 시작되면서 따뜻한 한 끼 밥상을 책임질 김장김치를 소중한 이웃들



2024 사랑나눔 김치나눔 행사 참여자 단체 사진. ©그린닥터스재단

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면서 "그린닥터스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건강김치가 경제난으로 힘겨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살롬나비, 서울역 주변 쪽방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살롬나비가 올해도 성탄절을 앞두고 최근 서울역 주변 쪽방촌을 방문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앞서 소망울찾는이교회(담임 김용삼 목사)에서 예배를 드린 후 주변 쪽방촌 가정을 방문해 쌀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 사회는 최철희 선교사(시나이선교 한국 고문)가 맡았고 이른희 집사(살롬나비 구제이사, 당카엔 트리 대표)가 기도했다. 최성대 목사(라이프영성원 교수)가 설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살롬나비 관계자들. ©살롬나비

이어 살롬나비 상인대표인 김영한 박

사(기독교학술원장)와 소망울찾는이교회의 김용삼 담임목사가 인사했고, 김윤태 사무총장(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장)의 선장으로 참석자들이 살롬나비 행동강령을 제창한 후 김성봉 목사(성서대학 석좌교수)가 축도했다.

살롬나비는 "서울역 쪽방촌에 거주하는 김안숙 성도(독립운동가 후손인 조선숙) 가정도 함께 섬김하여 위로하고 기도로 격려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EDIYA STICK COFFEE

우석이가 만든 커피 한 잔

COFFEE MIX

이디야 스페셜 골드블렌드 리치크레마 커피믹스

STICK COFFEE

이디야 스틱커피 오리지널 아메리카노

EDIYA COFFEE

*제품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리스마스 일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작가 겸 목사인 다니엘 달링(사진)의 기고글인 '우크라이나의 크리스마스 일기' 여행 중 본 가장 감동적인 경험(Christmas in Ukraine diary: Most moving experience I saw during my trip)을 10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달링 목사는 사우스웨스턴 침례교 신학교의 토지 문화 참여 센터 소장과 텍사스 침례교 대학의 신앙 및 문화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나는 지금 유럽에서 포트워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최근 며칠간 동유럽, 특히 크라쿠프와 키이우를 방문했다.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포커스 온 더 패밀리(Focus on the Family) 등 여러 단체의 리더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다.

◆폴란드에서의 경험
폴란드에서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한 하나님의 교회 주교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약 1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국경을 넘어왔을 때, 교회들이 어떻게 주택, 음식, 교육, 의료 지원을 제공했는지 이야기했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의 많은 국가인데, 이런 이유로 폴란드의 교회들은 새로운 예배자들로 붐볐다.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우크라이나 교회 공동체도 세워졌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만남
우크라이나에서는 의회인 라다(Rada) 소속 의원들과 만났다. 다수당 대표와 국회의장은 미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국가 기도의 날을 제정하는 등 기독교 가치를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일부 보고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매우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로, 포르노가 금지되어 있고 동성결혼도 허용되지 않는다. 유럽 내 진보적인 국가들로부터 이러한 정책을 철회하라는 압력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를 거부해왔다.

의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고유한 유산과 관습을 제거하고 이를 러시아 연방에 통합하려는 것임을 설명했다. 푸틴의 군대는 수십만 건의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여기에는 성폭력, 집단 학살, 약 20,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로 강제 이송해 그들의 우크라이나적 정체성을 없애 만드는 행위도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내비쳤다.

◆우크라이나 교회의 회복력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우

크라이나 교회의 회복력이었다. 우리는 러시아 점령 당시 체포되었지만 여전히 사역을 이어가는 목회자들을 만났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생존 필요성을 도덕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갈망 속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현실을 들려주는 교회 지도자들도 만났다.

내가 속한 남침례교단(Southern Baptist Convention)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침례 신학교와 침례교 연합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리비우에 위치한 신학교에는 2,000명이 넘는 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수백 개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다. 다른 복음주의 교단에서도 비슷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분명 이 고난받는 국가에서 일하고 계셨다.

◆감동적인 순간: 기독교 구호 활동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기독교 구호 단체인 세이프 우크라이나(Save Ukraine)가 세운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였다. 이 단체는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서 납치된 어린이들을 구출하고, 이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음식, 주거, 교육, 상담을 제공한다. 이는 세상 어디에서든 인간의 필요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희망과 도움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번 여행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단순히 영토와 미국의 이익에 관한 논쟁을 넘어선 것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 나라는 독재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침략군의 전진을 막아냈다.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역에서 복음의 확산을 막지 못하게 했다.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다
키이우를 떠나 크라쿠프로 돌아오는 야간 열차에 탑승했을 때, 기차역에서는 한 밴드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하고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은 전쟁 중에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강한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최승연 기자

라크마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가족이 하나되는 성탄 선물 선사

크리스마스 가족의 밤 콘서트, 한길교회서 성로, 장학생 함께



음악회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라크마(LAKMA, 단장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에서, 성탄을 앞두고 가족이 음악으로 하나되는 따뜻한 시간을 선물했다.

크리스마스 가족의 밤 콘서트가 라크마 주최로 지난 8일(주일) 저녁 7시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최승호 단장은 이번 콘서트에 LAKMA 장학금 수상자들이 함께 한다며 이들을 소개했다. 특히, 일등 수상자 피아니스트 정유라에 대해, "아버지와 오빠를 잃고, 질병을 앓으면서도 신앙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결과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권위 있는 상을 수 차례 수상했다"며 그녀의 성공 뒤에는 "한국의 외딴 섬에서 그녀를 지원해 준 어머니가 계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첫 무대는 에스더 김 부지휘자가 이끄는

생들의 공연으로 채워진 두번째 무대는 12월 가족이 함께하는 성탄 콘서트를 다양한 오페라곡들로 장식했다.

피아니스트 정유라는 그리그(Edvard H Grieg)의 '피아노 협주곡 A 마이너 16'를 연주했고, 소프라노 정예린은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그 이름(Caro Nome)'과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아, 나는 느끼네(Ach, ich fühl's!)', 소프라노 김시연은 푸치니의 라보엠 중 무제타의 왈츠(Quando men vo),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 'E strano... Sempre Libera'를 불렀다.

공연 후 각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식이 있었다. 이번 장학금은 피아니스트 정유라, 소프라노 정예린(카네기멜론 대학 재학, 상금 2천 달러), 3등 소프라노 김시연(아이오와 대학, 상금 1천 달러)에게 돌아갔다.

이번 행사는 Los Angeles County Arts and Culture, 그레이스 호스피스, 워드미선대학교, 디에스림 재단(DSLIM Foundation), 한길교회에서 후원했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 밀알 화요일예배, 한 해의 끝에서 감사의 마음을 새기다



행사장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조영건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남가주 밀알 화요일예배가 10일 오후 7시 30분에 새누리교회에서 있었다.

이날 Mousikéum(뮤직케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밴드가 참석해 크리스마스 축하 콘서트를 열고 Silent night, Jingle Bell Rock, Your Song 등 12곡을 연주하며 청중들에게 갈채를 받았다. 피아노 및 보컬에 Jae Park, 기타에 John DePatie, 베이스 및 보컬에 Amos Byun이 참여했다.

"다윗의 감사"(시편 91-4)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조영건 목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며,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조 목사는 밀알 선교단의 사역이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며, 각 성도와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

닫고 감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며, 감사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의 중심임을 강조했다.

특히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교 중 조 목사는 예전에 자신의 건강 관리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군대식으로 산다. 신앙 생활에서도 이러한 규칙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식 생활은 영적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성도들에게도 규칙적인 삶을 실천할 것을 권면했다.

조 목사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독려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길 축복하며, 밀알 선교단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CMF선교원 12월 정기 예배 드리고 친교 나뉘

이광수 목사 "하나님의 인애" 강조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에서는 12월 정기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7일 오후 5시, CMF회관에 모인 회원들은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돼 찬송을 부른 후 김영호 선교사(중동)가 대표로 기도하고 이광수 목사(갈보리교회)가 설교 했다.

이광수 목사는 호세아 7장1-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참석 한 모든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어 향후 진행 될 행사를 소개하고, 양병식 목사(CMF선교원)의 인도로 합심기도 한 뒤, 광고와 유영택 선교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이후 CMF선교원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나눴다.

특별히, CMF선교원은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CMF선교원 12월 정기 예배를 드리고 참석한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1시 30분까지 2024년 HOMELESS MINISTRY를 계획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new
renewable
energy

탈라해상풍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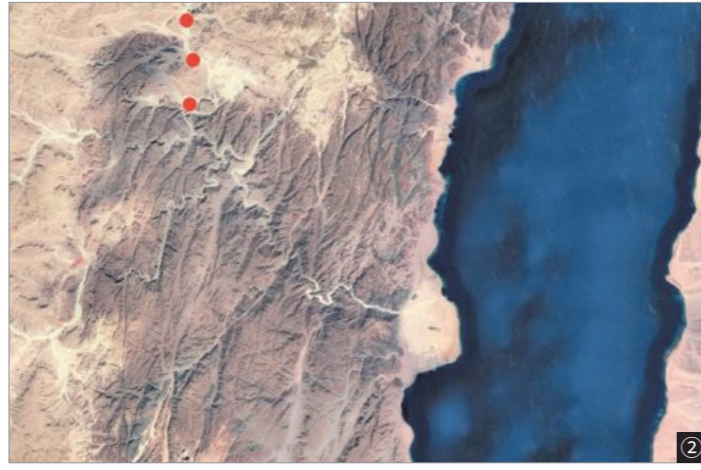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장자(이스라엘)를 위한 전투 I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2,336회 사용되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건들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작되었고 전개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국가적, 민족적 비전을 갖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이집트 민족이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풀려나기 전에 그들은 집 문 주위의 인방(인방)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다. 여기에는 믿음의 행위와 순종이 필요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당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따랐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손으로 그들에게 닦진 무서운 재앙 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지에서는 출애굽 진실에 관한 저자의 30여 년간의 끈질긴 탐구 결과물로, 아마존에서 영어권 크리스천 독자들에게 호평 받는 『Battle for the Firstborn』의 번역본인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투탕카멘의 죽음』의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출애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①출애굽 경로. 위 그림에서 적색 점선이 론이 주장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경로이다. ②와디 와티르(Wadi Watir), 홍해를 건너기 위해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인도하신 좁은 길. 누웨이바(Nuweiba)의 거대한 해변이 그들의 집결지였다. ©Google Earth ③와디 와티르 출구 근처에서 누웨이바 해변으로 향하는 론(Ron). 와디는 온통 구불구불 이어서 길이 끝나는 듯하다. ©Mary Nell Lee

[창세기 4:22-23] 22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23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처음 아홉 가지 재앙은 애굽을 완전히 황폐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수장은 신(神)의 무력함을 증명하기 위해 계획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그의 마술사들과 그의 신들이 위대한 절대자의 힘에 속수무책임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집트가 황폐화를 겪은 후에도 파라오가 완고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집트 민족이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했다.

유월절의 기원

처음 아홉 가지 재앙이 있고 난 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것이 해의 첫 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셨다. 그달 10일에 각 집에 흠 없는 어린 양, 곧 일 년 된 수컷을 취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들은 그 귀여운 어린 양을 같은 달 14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잡아야 했다. 그 후에 그들은 무죄한 작은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어린 양을 먹은 집의 좌우 문설주와 집의 위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 그런 다음 어린 양을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게 했다. 그 후에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장자의 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백성들에게 이 일을 매년 기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적으로 구출된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과 그

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그들의 희생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의 최종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큰 무리가 풀려나기 전에 그들은 집 문 주위의 인방(인방)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순종해야 했다. 여기에는 믿음의 행위와 순종이 필요했다. 그들은 이집트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각자의 집으로 모여야 했다. 우리는 쉰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남겨졌음을 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 중 누군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들어오기를 간청하면 그가 그들에게도 덮였다. 희생양은 마태의 메시아인 하나님의 어린양을 상징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초를 놓고 있었다. 그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증거를 기적으로 보존하신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11:2]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불이와 금불이를 요구하게 하라!" ... [출애굽기 12:35-36] 35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불이와 금불이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출애굽기 36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이 본문에서 '빌리다'와 '빌려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동일한 히브리어 '사알(צָאַל)'이다. 이 단어는 단순히 '구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주다' 등을 의미한다.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빌리다'로 번역된 경우가 6번, '빌려준다' 또는 '대출한다'로 2번 번역되었다. 그러나 87번은 '부탁한다'로 번역되었고 60번 이상은 단순히 'as'를 의미하는 다른 단어로 번역되었다.

이 구절은 그들이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손으로 그들에게 닦진 무서운 재앙 후에 이집트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전염병과 같은 사건은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증거가 밝혀지면서 모든 징후는 처음 아홉 가지 재앙과 일치하는 고대 이집트의 완전한 황폐화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재앙이 왔다.

[출애굽기 12:29-32] 29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 주어서,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에 그것을 입고 기쁨부음을 받게 하라. 30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제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31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에 드린 숫양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살라. 32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바로 이 숫양의 살코기와 광주리에 든 빵을 먹는다.

파라오 맏아들의 죽음

아멘호테프 3세의 맏아들인 투탕카멘은 그날 밤 어느 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공정을 휘감는 조용한 밤에 청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맞아 죽었다. 그의 아버지 아멘호테프 3세는 맏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을 보았다. 공식 의례를 따랐고 마지막 파라오의 장자가 출애굽 당시의 파라오였다면 그도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젊은 투탕카멘의 증거를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하셨다. 젊은 공동 섭정이 진정으로 파라오로 통치한 적은 없지만 그의 묘지의 내용물은 192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파라오의 비탄은 헤아릴 수 없었다. 온 나라가 가족을 잃은 애도 소리로 가득 찼다. 마침내 파라오는 패배했고 그는 모세에게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광야로 3일 길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계속 나아갔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이집트

인들은 틀림없이 시나이반도 전역에 파수꾼을 배치했고 그들의 모든 군사적 승리는 전적으로 신들의 은총 덕분이었다.

[출애굽기 14:3]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서 얽혀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했음을 전달하기 위해 거울로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산, 모세가 처음으로 불타는 떨나무를 만난 시나이산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기 위해 취한 북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멈추고 돌아서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무리가 남쪽으로 돌아서 좁고 구불구불한 와디로 들어갔다. 때때로 이 구불구불한 좁은 협곡은 너비가 기껏해야 약 75피트(약 23m)에 불과하여 항상 바로 앞에 막다른 골목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좁은 통로를 여행하는 것은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볼 수 없어 두려웠을 것이다. 약 18마일(약 29km)의 여정은 웅장한 사람도 시험에 들게 했을 것이다.

파라오는 그들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이때까지 그의 큰 슬픔은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600대의 정선된 전차와 애굽의 모든 병과 각 지휘관을 거느린 파라오는 전군을 소집하고 맹렬히 노하여, 그 큰 무리를 향해 곧 아카바반까지 쫓아갔다.

군대의 사단은 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군대가 전쟁에 나설 때 불어졌다. 다양한 사원에게 정교한 의식이 거행되었으며, 다양한 신들에게 그들의 적에 대한 승리를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군사적 승리는 전적으로 신들의 은총 덕분이었다. 때때로 사제들은 신들이 전투에서 특별한 기호가 있기를 바라며 군대와 함께 전장에 나갔다. <계속>

※이 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투탕카멘의 죽음』에서 발췌해 소개합니다.
글: 메리 넬 와이엇(Mary Nell Wyatt-사진) 번역: 리진만 선교사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 성탄절 위한 합창 연습 금지 당해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주일 저녁 한 성당에서 크리스마스 미사를 위한 합창단 연습을 중단시켰다고 모닝스타뉴스(MSN)가 전했다.

틱톡 계정 @sellself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남셀레베스주에 위치한 카일 마을에서 주로 무슬림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협회장이 가톨릭 성 요셉스태이션 성당(Catholic St. Yoseph Station church) 교인들에게 “합창 연습은 지방 정부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애플스로 알려진 엔디 아르만 협회장은 영상에서 자신이 가톨릭 합창단과 지역 무슬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합창단원에게 “먼저 (무슬림) 이웃에게 이런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허가를 구하면 지방 정부에 보고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이런 식이라면 허가가 없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후 현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예배 활동이 있다고 생각한 주민들이 오라고 했다. 크리스마스 노래 연습이었다”면서 “무슬림 주민과 교회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사전 합의를 했고, 그들을 폭도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어 “난 가톨릭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왔다. 허가를 받으면 다른 당사자들이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교구민은 MSN과의 인터뷰에서 “합창 연습을 했던 다목적 건물을 예배 장소로 사용한 적이 없다. 그 건물은 교회 예배를 위해 지어졌지만 지역 무슬림들의 반대로 인해 사용된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슬림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교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이 다목적 건물에서 다른 교회 활동을 한다”고 했다.

온건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인도네시아 모두를 위한 운동은 “크리스마스 합창 연습 금지에 대해 알게 돼 슬프다”며 “해당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 언제부터 크리스마스 합창 연습에



©Pixabay

지방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나?”라고 반문했다.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이 참여한 이 단체는 “예배 장소를 세우려면 두 장관 공동령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합창 연습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이를 금지한 사람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무슬림 지도자 우스타즈 안디 사트리야(Ustaz Andi Satria)는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한 합창 연습은 위협이 아니며,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슬람은 무슬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축복으로서 관용을 가르친다”고 했다.

그는 “편협함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데서 발생한다. 우리는 때로 종교를 너무 알게 이해하기 때문에, 합창 연습을 하기 위해서도 허락을 구한다. 우리의 일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 지방 정부가 주민들의 신고를 처리하는 데 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습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 정부는 활동을 중단시키는 당사자가 아니라 보호자로서 존재해야 한다. 그 후에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상적인 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이유론든 종교 활동을 중단하는 것

은 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특정 종교의 나라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국가”라고 덧붙였다.

파티마 성모 마리아(St. Mary of Fatima) 교구의 수장인 임마누엘 아시(Immanuel Asi)는 MSN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당사자와의 협력 덕분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으나, 한 지역 소식통은 “해결책이 없으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인트 조셉 스테이션(St. Joseph Station)은 사우스 셀레베스 벤타엔 리전시에 있는 파티마 성모 마리아 교구의 일부이며, 마카사르 대교구(Makassar Archdiocese)에 속한다. 약 50가구 또는 약 215명의 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파티마 성모 마리아 교구 전체 회중의 약 50%를 대표한다. 이 스테이션은 교구에서 차량으로 약 30~40분 거리에 있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4년 기독교 박해국 목록(WWJ)에서 인도네시아는 42위를 차지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회는 더 엄격한 이슬람 이념을 채택했으며,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교회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표적이 될 위험이 있다.

이미경 기자

미국인 47% “성탄절 시즌, 교회 출석할 예정”

라이프웨이 리서치 설문조사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성탄절에 교회를 출석할지 여부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지난 8월 1천2백여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응답자 절반(47%)이 성탄절 시즌에 일반적으로 교회를 출석한다고 답했고, 48%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라이프웨이 스콧 맥코넬 이사는 “크리스마스는 이름 자체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데서 유래했다. 14세기 중반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단어가 이 축하 행사를 위한 단일 용어로 처음 통합됐다”라며 “미국인 10명 중 9명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만, 오늘날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가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연구는 다양한 교파의 교인들이 교회를 출석할 가능성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신교(57%), 천주교(56%), 그리고 타종교인(53%)은 무종교인보다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출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며, 무종교인 중 21%만이 출석한다고 보고했다. 무종교인 중 71%는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보통 출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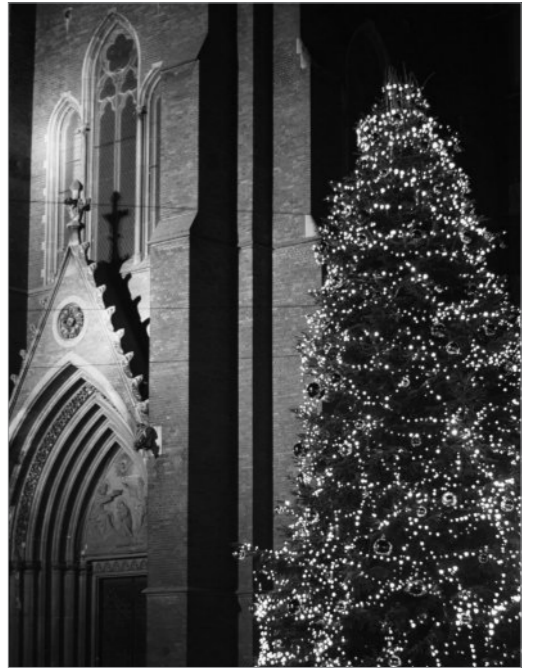
교회 출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예배를 참석하는 빈도였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를 출석하는 응답자 중 95%는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출석한다고 답했다.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응답자의 약 72%가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출석한다고 보고한 반면, 복음주의 신앙인이 아닌 응답자 중에서는 불과 40%만이 그렇게 답했다.

크리스마스에 일반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응답자의 47% 중 대다수(60%)는 그들의 동기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특히, 교회를 출석하는 빈도수가 적은 응답자는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출석하는 주된 이유로 전통을 꼽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교회를 거의 출석하지 않거나 절기에만 가는 응답자 중 각각 22%와 27%는 주로 전통을 지키기 위해 참석한다고 답했고, 정기적으로 매주 출석하는 응답자의 경우 10%에 불과했다.

맥코넬 이사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회 예배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그들의 주된 동기는 통일되지 않았다”라며 “대부분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를 그리스도 또는 약속된 메시아로 기리기 위해 간다. 하지만 다른 응답자들은 주로 가족의 중요성, 크리스마스 교회 전통을 받아들이거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unsplash.com

참여한다”고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가지 않는 많은 미국인도 초대받으면 교회에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를 가지 않는 응답자 중 56%는 자신이 초대하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17%는 교회 출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36%는 참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고, 24%는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맥코넬 이사는 “8명 중 1명 이상의 미국인이 자신이 초대할 경우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라며 “하지만 크리스마스 예배를 가지 않던 미국인 대부분은 자신이 초대하면 참석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초대 효과는 종교 단체마다 달랐다. 가톨릭(71%), 개신교(65%) 및 기타 신앙인(58%)은 무종교인(40%)보다 초대를 받으면 참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초대를 수락할 가능성은 여성(61%), 히스패닉(72%) 및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69%) 사이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미국인들은 초대를 받더라도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데 관심을 덜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 중 48%는 초대 여부와 관계없이 예배에 참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 조사는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사전 모집된 패널을 사용하여 실시됐다. 표본이 미국 인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민족, 교육, 종교 및 복음주의 신앙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할당량과 약간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이 조사에는 또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미국인을 과도하게 표본 추출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하위 그룹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전체 샘플의 오차 한계는 +3.3퍼센트 포인트다. 이미경 기자

EU, 제재 우회하는 러 ‘그림자 함대’ 추가 제재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러시아 석유 운반 선박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새 제재안에 11일(현지시간) 합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EU 의장국 헝가리는 이렇게 밝히면서, 특히 러시아가 석유·연료 운송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이용하는 ‘그림자 선박’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운항되는 노후 선박 약 50척이 그 대상이며,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러시아의

움직임이나 정책을 지원하는 선박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헝가리는 밝혔다.

이번 제재는 더 많은 공무원과 단체, 특히 수출 제재를 회피해 러시아의 군사 기술 향상을 돕는 국가의 기관·기업은행 등을 겨냥할 것이라고 한다.

EU 외무장관들은 오는 16일 이 제재 패키지를 공식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공식 법률 저널에 이번 조치가 게재되면 제재 대상이 된 개인

과 기관에 대한 정확한 세부 정보가 공개된다.

EU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여러 차례 제재를 부과했다. 현재 개인과 단체 2300명 이상이 제재를 받고 있다.

제재는 에너지 부문, 은행,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채굴 회사, 기업,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러시아 의원들에게도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최현호 기자



시간의 가치로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곳

롯데캐슬에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당신의 눈부신 인생이 쌓인다는 것이기에 오늘도 롯데캐슬의 자부심과 품격은 어제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세력’과 끝까지 싸워야

1. 윤정부의 하차는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다.

한국기독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막아왔다. 최근 10.27 일에는 광화문광장과 여의도에서 현장110만 온라인 100만명이 모여 기도하며 차별금지법과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현 야권은 그동안 항상 차별금지법제정에 앞장 서왔다. 21대 국회에서도 4건의 차별금지법이 현 야당소속 의원들 주도로 발의 되었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서도 9월 13일 야당소속 김문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미니차별 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다. 앞선 6월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주도하는 발의가 있었다. 이런 야권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차별금지법 통과 의사봉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

모든 대한민국 성도들은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지금은 반국가세력과의 체제전쟁 중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받는 풍전등화(風前燈火) 상태이다. 종북세력과 좌익세력들은 지금도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선전, 선동으로 서서히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잠식하여 왔다. 고로 지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세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옹호하며 대한민국을 해체, 파괴하려는 가짜 진보, 좌익세력 간의 최후 대전(大戰)이다. 광우병 난동을 부렸던 세력들이 다시 광장에서 흑세무민(感世誣民)하며 현 정부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다.

3.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원인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다.

이번 계엄발동의 배경 중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있다.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의석을 무기 삼아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장관, 검사는 물론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스무 번이 넘는 탄핵 시도로 국정을 마비시켰던 것이다.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이한 행태이다.

거기다가 법 집행기관인 검찰·경찰·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 ‘예산의결권’은 국회 권한이지만,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

7000억을 지역화폐 사업으로 전용하고, 미래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SMR 투자보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업을 우선시하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진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미래 투자 예산을 삭감하였다. 야당대표 개인의 안위를 위해 검사들을 탄핵하며, 간첩법에 반대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과연 반국가적이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발동권 카드를 꺼내어 들었던 것이다.

4.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內亂罪)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폭동(暴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

5. 윤석열 정부의 중도하차는 괴물정권을 탄생시킨다.

윤정부를 중도하차시키는 행위는 수많은 혐의의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가담하는 행위이다. 현재 야권의 독보적 대권 후보 1위는 8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범죄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보수계열을 가져왔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당시 사분오열됐다. 탄핵 찬성과 반대파가 대립했고 일부 세력은 당을 뛰쳐나갔다. 결국 문재인 정부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 이른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초토화시켰는지를 절실히 경험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의 실정으로 경제·외교·정치 등 전 분야에서 크고 작은 잡음을 일으켰다.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 경제 지표만 악화시켰고, 이념 편향적인 부동산 정책은 되레 집값 폭등만 유발했다. 그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서도 북한으로부터 ‘특등 머저리’라는 조롱을 들었고,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자신의 측근을 기어코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가 나라를 둘로 쪼갰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는 ‘문재인 정부 시종’ 출범과 같다.

6. 부정선거 의혹은 말끔히 정리하고 가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당수가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고,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가장 많은 군병력이 투입된 곳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를 훼손하는 자가 반국가세력이다.

7.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변함없이 임무수행을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계엄의 선포한 배경과 이유를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되도록 소상히 밝힘과 동시에, 통수권자로서 변함없이 책무와 권한을 끝까지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8. 마무리: 지금은 온 국민이 하나로 연합할 때이다

분열은 체제 붕괴이고, 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이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 서로를 향한 폭언을 멈춰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길 때이다.

이번 사태 앞에서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Fear)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대통령도 회개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어릴 때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한국교회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어 미래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2024. 12. 13.

●참여단체 :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 만들기도민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제한

대법원,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 유죄 인정... 정경심 전 교수는 집행유예 선고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함께 선고된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정경심 전 동아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박형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먼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제출한 혐의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검찰과 조 대표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옳아 신뢰할 수 있는 판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대표 측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선고에 조 대표는 불출석했으나,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선고 후 김진민 조국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시스

신당 수석최고위원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주의 시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비례대표 13명이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검찰은 조 대표에 대해 내일까지 검찰청 출석을 소환 통보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형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국 기자

“헌정 질서 수호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국헌 문란 행위로 인한 국가 기능 붕괴를 막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이어오며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직자 탄핵 남발과 위헌적인 특검 발의, 간첩행위에 대한 차별 방해 등을 지적하며 이를 “국가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담회에서는 국가 안보 위협 사례도 언

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외국의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며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원전 산업 지원, 미래 성장동력 육성 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꺾어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회를 마비시키거나 헌정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를 알리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직후 병력을 즉각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철수시켰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야당의 중범죄자 몰이와 탄핵 시도는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 국정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용국 기자

민주당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는 극우 선동과 증거인멸 공개지령”

한동훈, 윤 대통령 제명·출당 위한 당 윤리위 긴급 소집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놓고 “탄핵을 염두에 둔 현재변론요지 낭독이자 극우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담화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언급한 ‘헌정수호를 위한 헌법과 법률 위반, 실패할 계엄 기획 발언에 대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규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이번 담화가 “탄핵을 염두에 두고 현재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했을 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적으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질서 있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



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며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결정으로 국가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불안한 일상을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당 윤리

위원회를 긴급 소집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대표는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용국 기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선출... ‘당 분열 막겠다’

106명 중 72표 얻어 김태호 의원 압도적 차이로 누르고 당선

국민의힘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5선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치러진 선거에서 당 소속 의원 106명 중 72명의 지지를 받아 34표를 획득한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 제치고 당선됐다.

강원 강릉에서 18대 국회부터 5선을 지낸 권 신임 원내대표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 중진 의원으로 꼽힌다. 2021년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캠프의 종합지원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의 주역으로 평가받았으며, ‘원조 친윤’으로 불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원내대표를 역임했으며, 이준석 전 대표 정계 이후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당선 직후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의 어려운 시기를 하루 빨리 준비하고 조만간 있을지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힘과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의 혼란스러운 당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특히 친윤과 친한(안)을 의식한 듯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이 안정되면 임기 1년을 채우지 않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다.

당면 과제로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 결정이 있다. 지난 7일 표결에서는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정했으며, 108명의 소속 의원 중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을 폐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은 탄핵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당론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시스

탄핵을 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강승규 의원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항의했고, 이철규 의원은 “내란죄라고 대표가 단정하는 것은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 방편에 대해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며 “의원들 각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지만 단일대오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께 의원총회를 재개해 윤 대통령 탄핵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용국 기자



걱정은 나누고
위기는 함께하는 자조금~!

자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
+ 가격안정

신제품 개발
및 재배기술
교육

농업소득
안정에 기여

자조금, 이런 일을 합니다


- 자율적 수급조절** : 경작 및 출하신고, 품질과 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출하조절 등 수급관리 지원
- 소비 홍보** : 품목에 대한 소비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캠페인, 판촉행사, 언론홍보 등
- 품질 개선 등 조사 연구** : 품목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유통창구 단일화 등 유통구조 개선 유도, 소비자 맞춤형 신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 추진
- 교육 및 정보 제공**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교육과 품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최대 1:1(자부담 50% : 국고 50%)까지 국고 매칭 지원

농산 의무자조금 품목 현황

2015년 인상을 시작으로 현재 총 18개 품목의 의무자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한국저자조회
- (사)한국인삼협회
- (사)한국복숭아 생산자협의회
- (사)한국백합 생산자중앙연합회
- (사)한국딸고연합회
- (사)한국키위연합회
- (사)한국양파연합회
- (사)한국배연합회
- (사)한국마늘연합회
- (사)한국파프리카 생산자협회
- (사)한국사과연합회
- (사)한국포도협회
- (사)한국화훼 자조금협의회
- (사)한국참외 생산자협의회
- (사)한국난 재배자협회
- (사)대한두채협회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5조7000억... 연말엔 더 늘어날 전망

부가세 증가로 소폭 개선, 그러나 연간 목표치 초과 가능성 커

올해 10월까지 국가 재정 적자가 75조 7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월 부가가치세 세수가 늘어난 덕분에 분석되지만, 연말로 갈수록 적자 규모가 다시 증가해 정부가 설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인 91조6000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는 30조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

7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5000억 원까지 확대되며 정부의 연간 목표치에 근접했으나, 10월 부가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덕분에 일부 개선된 모습이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부가세 효과 가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추가적인 적자 확대가 우려된다.

국제 수입은 10월 기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7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17조9000억 원 감소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소득세는 2000억 원, 부가세는 6조 1000억 원 늘어났으나 법인세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

원 증가한 24조1000억 원, 기금 수입은 16조4000억 원 증가한 180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 원 증가한 49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조3000억 원 증가한 629조1000억 원으로 수입 증가분을 크게 웃돌았다.

중앙정부 채무도 꾸준히 늘어 10월 말

기준 잔액이 전월보다 6조8000억 원 증가한 1155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11월 국고채 발행량은 7조8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98.6%에 해당하는 156조2000억 원이 올해 들어 발행됐다. 한편, 11월 조달금리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2.90%로 집계됐으며 응찰률은 전월보다 감소한 332%를 기록했다.

이내래 기자

SK 최태원 회장의 차녀 최민정, 美건강보험 체계 비판

총격 사건 계기로 의료 시스템 문제 지적... 스타트업 통해 독자적 행동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33)가 미국 건강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니티드헬스그룹(UHC) 브라이언 톰슨 보험 부문 대표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최민정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폭력은 절대 해답이 될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느끼는 좌절감을 매우 타당하다"며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톰슨 대표는 뉴욕 맨해튼 거리에 서 26세 남성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해당 남성은 건강보험사들의 비용 절감 압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미국

사회에서는 주요 건강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지연이 의료 시스템 불만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씨는 이번 사건을 미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취약 계층에게 실패를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피해를 보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분노는 시스템 고장의 증상임으로 시급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민정 씨는 미국에서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테그랄 헬스(Integral Health)'를 설립하며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리 건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헬스케어 기관 및 보험사와 협력해 심리치료와 AI

기반 케어 코디네이터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최 씨는 한때 SK하이닉스에서 글로벌 투자 및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했으나 퇴사 후 창업의 길을 택했다. 그는 예일대 의학박사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공동 설립하며 심리 건강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장녀 최유정 씨는 SK 바이오팜의 사업개발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SK㈜의 신설 조직인 '청정 지원' 담당을 겸직하며 그룹 내에서 경영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장남 최인근 씨는 SK E&S에서 근무하며 최근 부친 최태원 회장과 함께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부친과의 개인적 교류 장면이 외부에 공개되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내래 기자

서울YWCA,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허라이즌2' 모집

다양성·포용 리더십 지원 '차세대 여성' 양성 프로그램

서울YWCA(회장 조연신)가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만 25-39세 여성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 '허라이즌2'를 진행한다. 수직적 리더십이 아닌 나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양성과 포용의 리더십을 다룬다.

프로그램은 2025년 2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4개월 간 진행된다. 오픈닝 세레모니를 시작으로, 6회의 리더십 스킬 세미나, 2회의 리더십 워크숍, 2회의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여성의 내적, 사회적 성장과 소통을 목표로 한다. 참여자들은 총 10회 강연을 통해 리더십, 멘토링, 기술, 심리학 분야 전문가 강연과 주한미국대사관 외교관의 특별 강연에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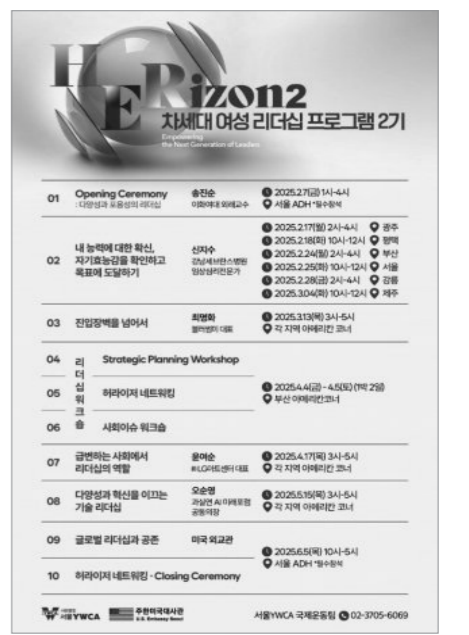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인 'HERizon'은 여성의 일·업, 여성을 제약하는 한계를 넘는다라는 뜻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은 포용과 다양성의 리더십을 업무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허라이즌'은 31명의 '허라이저'를 성공적으로 배출했다. '허라이즌2'는 1기 수료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욱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으로 준비됐다. 업무 리더십 스킬은 물론 지역사회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허라이즌2'는 주한미국대사관 내 아메리칸 디플로마시 하우스 서울을 포함해, 강릉(강릉시립 무루도서관 내), 광주(광주시립 무등도서관 내), 부산(국립부경대 미래관 내), 제주(제주 한라도서관 내), 평택(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 내)에 위치한 '아메리칸 코너'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아메리칸 코너는 미국의 공공외교 정책,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적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파트너십 공간이다.

한편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



며, 오는 12월 22일까지 참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후 온라인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참여자 선별이 확정된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YWC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선영 기자

비상계업 여파로 소상공인 매출 타격... 10곳 중 9곳 감소

소공연 조사, 매출 방문 고객 급감... 연말 특수 실적 우려

비상계업 사태 이후 소상공인 10곳 중 9곳이 매출과 방문 고객 수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123 비상계업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소상공인의 88.4%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특히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한 사업체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30~50% 감소는 25.5%, 10~30% 감소는 21.7%를 차지했다. 매출 감소 폭이 100만3000만 원에 달한 응답자는 44.5%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5000만 원 감소한 곳은 29.1%, 500만~1000만 원 감소는 14.9%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일주일 동안 매출이 1000

만 원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5%에 달했으며, 이 중 2000만 원 이상 감소한 사업체도 5.4%를 기록했다.

매출 감소와 함께 고객 방문도 큰 폭으로 줄었다. 소상공인의 89.2%가 비상계업 이후 방문 고객이 줄었으며, 이 중 37.7%는 손님 절반 이상 줄었다고 했다.

방문 고객 수가 30~50% 줄었다는 응답은 25.3%, 10~30% 감소는 20.2%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경기 전망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사 응답자의 61.9%가 경기 전망을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28.2%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해 총 90.1%가 어

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소공연의 류필선 전문위원은 "예외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연말 특수 실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세제 완화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들이 비상계업 이후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음식점·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내래 기자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시진핑 주석 초청... 외국 정상 초대 여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BS는 11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직후인 지난달 초 시 주석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초청을 수락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관련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중국 강경 기조를 예고한 상태다. 차기 외교·안보 라인으로 대중 강경파를 임명하고,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

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CBS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도자 간 긴밀한 관계를 국제적 거래에서 핵심 요소로 간주해 왔다고 전하며, 취임식 초청 역시 이 같은 신념에서 비롯된 행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취임식 초청 대상은 시 주석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비롯한 다른 외국 고위 인사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극우 성향의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의 트럼프'로 불리며, 트럼프 당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인물이다. 그는 최근 트럼프의 마라라고 리조

트를 방문하기도 했다. 현재 오르반 총리는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 1874년부터 시작된 국무부 기록에 따르면, 외국 정상 대신 대사와 외교관들이 주로 초대돼 왔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서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곧 권력을 되찾아 힘을 통한 평화를 세계에 회복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은혜 기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행복수호천사 **K-COMWEL**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큐브

행복공식

노동보험으로 일터안심 + 근로복지서비스로 생활안정

Comfort U & Be Easy
근로복지공단

일터 안심

- 산재보험
- 재해보상
- 재활치료
- 고용보험
- 보험가입
- 피보험자 관리

생활 안정

- 가계 노후 안정
- 퇴직연금 기금
- 임금채권 보장
- 복지증진
- 생활안정자금 대부
- 여가문화, 직장어린이집

모든 명령을 다 지키는 축복과 저주

박진호 목사
멤피스커비우즈한인교회



부 모양에 성실히 참석하고 교회에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하는 것들 말합니다. 그런 일들을 잘했다고 꼭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는 마땅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만 말입니다. 어떤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은 대로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그 무거운 비행기가 공중에 뜬다고 믿으면 안심하고 타야 합니다. 유체물리학을 배워서 비행기가 뜨는 원리까지 알면서도 평생 비행기 여행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믿는 것입니다. 최대한 양보해도 믿는 하되 그 믿음이 삶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비행기가 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 타지 않을 것이니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지키면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그 명령을 지키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선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로만 믿는 것을 지식적 믿음이라고 표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지 않는다면 자가 아내를 믿지 못하거나, 거꾸로 아내가 자기를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지식적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신자가 아니라

만여보려 노력하고 있는 기독교 입문자일 뿐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지키 행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개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당신의 계명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모든 명령"을, "모든 사랍"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지키라는 의미가 명시적이든 아니든 자연히 포함됩니다. 일부 명령을 일부 사람이 특정한 경우에만 지켜도 된다는, 다른 말로 경우에 따라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명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삶의 전반적 측면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의 전반적 측면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러한 진리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광주 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 도 나가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풍을 떠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미 리 김치 국물만 마신 것입니다. 아니면 한두 개 행하고는 백 가지 다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좋게 말해 신자가 허풍을 떨었고, 정확히 말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부여하셨다고 합니다. 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

항이 아닙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내리게"(1절)와,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9절)와,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12절) 등이 전부 그런 뜻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신의 성품이 온전하게 드러나는데 통일성과 일관성에서 일질적 모순과 상충을 드러낼 리는 없습니다.

물론 신명기 28장의 모든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율법에는 사회법뿐 아니라 개인적인 도덕법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와 비중을 갖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 모든 명령을 지키길 원하셨고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그런 복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더러 세상에서의 제사장 나라 소명을 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신4:5-8)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 큰 나라",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 "공의로운 큰 나라"라고 강조합니다. 율법의 수신자는 항상 이스라엘이었지,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그 이후의 선지자와 왕들도 백성들의 모임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함께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할 때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의 공동체 즉, 광야 교회였습니다. 복을 받기도, 특별히 벌을 받기도 반드시 함께 받았습니

다.

결국 신명기 28장을 오늘날의 상황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이스라엘아 들라, 행하라"는 모든 계명에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를 대입하면 됩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전교회적으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십 배 성장시켜 한국 최고 최대의 교회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속의 모든 공동체나, 타 종교의 공동체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참 하나님만 따르는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백성이로다"라는 칭송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 혹은 "체속 집단보다 더하다"는 비난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즉, 거룩하고 의롭게 행할 때에는 그 거룩함과 의로움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도 교회가 한 마음, 한 믿음, 한 소망으로, 한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모시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서로 섬길 때에는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권능이 넘치는 그분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또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인간으로서 큰 복이 없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그것도 머리로 남보다 조금 많이 아는 정도만으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았다고 담뱃배는 것과 신명기 28장이 의미하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들을 심방이나 개업 같은 개인적 예배의 단골 기도문 혹은 축복의 선포로 얼마나 오용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는 것이 절두철미한 종교인으로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장차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 이기에 오늘날에는 적용 못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는 모든 계명에, 심지어 제사법과 정결법과 사회법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신약 신자 모두가 그 모든 계명에 드러난 그분의 거룩한 뜻대로 언제 어디서나 따라야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계명을, 그 의미만이라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성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단순히 죄를 죄로 알게 해주는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이 타락한 후 지금까지 이르도록 일관되게 인간에게 바라는 수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바라는 그 수준에서 모든 측면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여하신다는

차원을 넘어서 광연적으로 그런 신자 자신이 가장 참 인간답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택하는 자는 인간이 기대, 예측,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인 줄 더 잘 알면서도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명한 것입니다. 당신께서 온전하니가 당신의 자녀도 온전하라고, 당신께서 거룩하니가 당신의 자녀도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더 정확하게는 순종하는 만큼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인간이 복을 받아 누리려는 길은, 더 정확하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 그분과 항상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신자의 행동과 말은 물론 생각마저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은 물론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고 교제하고 누리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 이상 가는 복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맞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만큼 저주 받은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신명기 28장은 근본적으로 신자가 믿음생활(그 의미가 정확히 과연 무엇인지 아리송하지만, 흔히 쓰는 말이기에도 충성하면 복을 받고, 등한히 하면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자가 교회로 모여야 할 이유를,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 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 속에 사는 것이 인생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임을 세속의 공동체와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작금 과연 교회가, 아니 신자 개인이라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본장은 엄밀히 말해 그러지 않으면 교회로 모일 필요조차 없다는 뜻 아닙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교회가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 이전에 신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아무 복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인간답게 살지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원리는 전혀 모르고 본장을 고대의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조금 과장해서 말씀하신 성가신 계명이라고 여기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비는 주문 격으로 사용하고 있지

1946년
조용하지만 커다란 혁신이
한화생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8년 동안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세계가 함께하는 보험사가 되었습니다
* 글로벌 테크 기업 Need 연계 암보호 시스템 제공

그리고 한화생명이 이끄는 보험의 혁신은
시그니처 암보험, The H 건강보험과 같은
상품과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혁신으로
더 나은 고객의 삶을 위한
중심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혁신
오직 한화생명으로부터

한화생명

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

다.

다시 강조합니다. 신명기 28장은 근본적으로 신자가 믿음생활(그 의미가 정확히 과연 무엇인지 아리송하지만, 흔히 쓰는 말이기에도 충성하면 복을 받고, 등한히 하면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자가 교회로 모여야 할 이유를,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 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 속에 사는 것이 인생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임을 세속의 공동체와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서 주일입니다



성중근 목사
타코마 반석장로교회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시간을 만드셨고 하늘과 별을 통해 때와 절기를 주셨습니다(창 1:4).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전 3:11).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고 이 세상과 사람과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자연 계사를 통해 자신을 알려시고, 성경의 특별 계시를 통해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나.

18세기 영국 웨일스의 여덟 살 소녀 Mary Jones는 매 주일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어 옆 마을 에반스 부인 집에서 빌려 보았습니다. 성경을 사기 위해 6년을 저축하여 30킬로미터를 걸어 사러 갔지만 더 이상 웨일즈에 성경이 없다는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찰스 목사님은 그녀에게 자신의 성경을 주었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3월 영국 성서공회가 탄생하였습니다. 한 소녀의 성경에 대한 열망과 간절한 기도가 아직도 성경을 보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각국 성서공회와 세계 성경 번역위원회와 선교사를 통해 만들어지고 배포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감사하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보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내 삶의 나침반과 빛으로 사용하는지? 되돌아보는 성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고 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먼저 댚인 성경을 열어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시 119:130).

윤법적 정의와 복음적 사랑

양기성 박사

웨슬리언교회지도자
협의회 대표회장



모든 사물과 현상을 평가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히 단어 같은 경우 개념 파악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떤 단어에 대해 개념에 근거하지 않은 채 너도 나도 말하는데, 그런 경우, 내용이 각자의 주관대로 이해되어져 말하기 때문에 정확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잘못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개념부터 먼저 확실하게 한 후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사전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 그런 이유에서다.

먼저,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이 단어를 한국 사람들은 두루뭉술한 입장에서 이해하여 그 뜻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사랑”을 주제로 설

교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어느 청년이 어느 자매에게 “사랑합니다” 하면 그 의미 파악이 매우 애매하다. 설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녀간에 애정의 감정이 깃든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래저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와 같은 모호한 개념을 없애고,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세 가지로 나누어 사랑에 대해 말했다.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헌신적, 자비스런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ἀγάπη), 남녀 애정의 사랑을 말할 때는 에로스(ἔρως), 그리고 친구간의 사랑은 필레오(φιλέω)로 구분하여 말했다. 단어의 의미대로 말하니 오해할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스에 수사학(Rhetoric), 또는 논리학이 발전하여 수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이유다.

또, 의에 대해 말하면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를 말하는데, 이는 신앙, 믿음을 말할 때 ‘righteousness’를 쓴다. 사회적 의를 말할 때는 ‘justice’라 하며 보통 정의라 한다. 사회정의라 할 때,

‘social justice’라 하는 것 잘 알 것이다. 정의는 인간의 도덕생활, 특히 행위에 대해 말할 때 적용되는 단어다. “바름” 또는 “선한 행위”에의 곧음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올바른 도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과 정의에 대해 말할 때는 이와 같은 개념을 분명히 하고 해야 한다.

사랑과 정의는 미국의 윤리신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의 신학적 주제다. 그는 사랑을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설명하였는데, 사랑을 모든 자연, 우주만물을 이루는 기본적으로 영적, 정신세계의 실체라 말한다. 그래서 그는 사랑은 삶의 기본법(Love is the basic law of life)이라 하였다. 태어남과, 현실적인 삶,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사랑에 의해 형성되고 움직여진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현실의 조건에만 관심을 두어 내면 세계의 영적 정신적 가치는 잘 알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눈 뜬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다. 그러한 사랑은 시편 19:3-4의, “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끝까지 이르도다”와 같은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봄이 되면 얼었던 대지가 따뜻한 공기로 소리 없이 녹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으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 이상의 사랑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고대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의를 강조했다. 공자는 인(仁)을 강조했으나, 그의 제자 맹자는 의를 강조하는 철학을 했다. 스승을 따라, 인의를 가르쳤지만, 특히, 의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에 대한 한 예가 있다. 하루는 맹자가 우나라 양해왕을 만나게 되었다. 대학자이므로 오라 가라 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함께 만났을 때, 양해왕은 “어떻게 하여야 이 나라가 이(利)를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맹자는 “왕은 어찌하여 이(利)를 묻습니까? 의를 물어야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개인은 물론, 사회나 국가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도덕적 질서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중국의 공자나 맹자는 물질의 세계보다 정신 세계의 도덕 질서가 인간 삶이나 사회 및 국가에 우선함을 가르쳤다.

인간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출발과 종말이 모두 물질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탐욕 때문에 타인의 것을 빼앗는 일들, 물질에 도취되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일들, 마르크스 같은 이는 아예 물질

이 역사와 우주를 이어가는 본질이라 강변하기도 했다. 그의 논리는 무서운 전쟁을 유발했고, 그러한 전쟁은 수천만 명의 인명을 살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투쟁, 갈등 같은 것은 모두 의가 아닌 이를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간은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

지금 사랑과 의에 대해 말했는데, 그렇다면, 사랑과 정의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니버는 “개인의 문제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집단이나 그룹은 그룹 에고이즘 때문에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의의 해결해야 한다. 즉,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라인홀드 니버의 사랑과 정의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니버는 개인 이즘때문에 사랑으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고 강제성을 의미하는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라인홀드 니버는 정의는 사랑의 근사차라하여 정의 역시 사랑이 가지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즉, 사랑이라 하여 무조건적인, 무책임적인, 도덕

에 대한 무개념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사랑의 힘은 정의의 힘을 빌려 실현되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을 보면, 사랑이나 정의가 없는 사건 해결도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 불법 무력에 의해

나타난 결과들이고, 사랑은 하되 정의가 없으면 책임감이 없어 문제가 되풀이되는 현상을 초래하기 쉽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잘못에 대한, 또는 불의에 대한 회개나 반성 같은 돌이킴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제자리 걸음으로 정당한 효과를 얻을 수 없어 소멸되고 만다.

예수님도 사랑을 하셨는데, 그냥 하지 않으면서 볼 수 있다. 회개하고 반성하면 용서하여 주셨다. 사건에 대한 태도를 보시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든가, “네 믿음이 네 죄를 사했다”라고 하셨다. 회개가 없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다. 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의 본질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한 것이다. 아가페,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자비 일자라도 정의가 그 사랑 내면에 존재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을 말할 때는 항상 정의는 사랑의 근사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회개나 반성 없이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자들이 많다. 사랑과 정의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윤법은 정의로, 복음은 사랑을 위함이니 예수님은 윤법을 완성하셨다(마5:17).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린도 전서 1:1)

그 이름은 평화의 왕: 크리스마스

김희보 목사



[말씀과 명상(3)]
크리스마스 캐럴-디킨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이사야 9:6)
주 예수는 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기 전 ‘고난의 종’으로 먼저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자라게 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빌 2:7-10). 이제 주 예수는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골 2:8)

선지자 이사야 당시의 유대 왕국은 외국의 침입을 받던 고난의 시대였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혼란의 시대였다. 이사야는 이상국가를 건설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며, 메시아는 기묘자(奇妙者), 모사(謀士),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광의 왕이 그 이름이라고 말했다. 크리스마스를 素材(소재)로 한 作品(작품)은 많다.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단연코 디킨스(Charles Dickens, 1812-70)

의 〈크리스마스 캐럴〉(Christmas Carol, 1843)이다.

욕심쟁이며 구두쇠인 스쿠루지. 여느 해나 다름없이 금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그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서기(書記) 크로체트의 방에는 한 덩어리의 석탄 조각이 타고 있을 뿐이었고, 오후 늦게까지 근무하여야 했다. 그날 밤, 예전에 동업자였던 말레이의 망령이 스쿠루지에게 나타났다. 말레이는 자기가 살았을 때 욕심쟁이이며 구두쇠였기 때문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고생한다고 말하며, 너도 역시 자기처럼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네게는 아직 구원의 길이 남아 있다. 내일 밤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망령이 나타나 네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말레이의 망령은 사라져 버렸다.

시계가 새벽 한 시를 알렸다. 첫 번째로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나타났다. 그 유령은 스쿠루지의 쓸쓸했던 소년시절과 지금은 죽은 착한 누이와 그리고 스쿠루지가 돈 때문에 버린 옛 애인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나타난 것은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었다. 그 유령은 스쿠루지에게 가난하지만 행복한 서기 크로체트의 가정을 보여 주었다. 또한 스쿠루지를 위하여 축배를 들며 “불쌍한 우리 아저씨 스쿠루지!” 하며 눈물겨워하는 조카의 가정도 보여 주었다.

셋째 유령은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었다. 스쿠루지는 죽어서 차디찬 방에 홀로 버려져 있었다. 스쿠루지의 죽음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정말 잘 죽었다!” 하며 기뻐하였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 스쿠루지는 식은 땀으로 몸이 흥건히 젖어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 바로 크리스마스 아침. 스쿠루지는 크로체트의 집에 큰 칠면조를 보내고, 자선단체에 巨款(巨款)을 기부하였다. 그리고 조카의 집을 달려가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였다.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은 성인(聖人)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며, 기독교 교조(敎祖)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오직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신앙을 나타내기 위하여 엄숙하게 지켜져 왔다가.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축제일(祭日)이라는 골고디의 십자가를 상기(想起)하는 날이다.

◆김희보 목사는
예장 통합총회 용천노회 은퇴 목사, 중앙대 국문과와 장신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D.Min.)와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 「기독교사상」 편집 주간, 한국기독교공보 편집국장, 서울장신대 명예학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문학과 기독교(현대사상사)」, 「그림으로 보는 세계사(3권)」, 「지(知)의 세계사(리움사)」, 「세계사 다이제스트100」 등이 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자세

김성수 목사

시애틀 지주교회



갑작스런 한국 계엄 소식에 이변 주는 일손이 잘 안 잡혔을 것 같습니다. 해외 이민자인 우리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 불안한 감정이 그대로 전이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소식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듯이, 지금은 우리도 태평양 너머 조국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디아스포라(흩어진 백

성)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 중보자 역할을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국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쌓은 민주주의의 경험과 지혜를 한국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며, 조국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아가 페르시아의 신하로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했듯이, 우리도 비록 먼 곳에 있지만 조국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기도와 함께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뜻하며,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 조국의 평화와 화해

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리를 둔 관점에서 조국의 상황을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열된 사회의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SNS가 발달된 요즘, 진영논리로 극심히 분열되는 한국 사회에 어떤 긍정성과 화합의 메시지를 흘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해 역사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이민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조국의 위기 앞에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대책 없고 무분별한 비판은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사회에 늘려 보내야 하겠습니다.

동국의 철학

철두철미

동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철에 대한 믿음. 푸르른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믿음.

동국이 그 믿음을 빈틈없이 지켜 나갑니다.

70th STEEL WITH YOU
동국제강그룹

이런 설교자를 소개하고 싶다

신성욱 교수
아신대 설교학



설교를 하는 이라면 누구나 다 간절히 바라는 바가 하나 있다. 성도들이나 다른 설교자들로 부터 최고의 설교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설교학을 가르치는 설교의 전문가로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설교가는 누구인가요?”라는 것이다. 최근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교회의 예배에 참석할 적이 있다.

그 교회 담임이 나더러 설교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설교가가 있

니 그분을 모시라고 양보해서 초청한 설교가이다. 3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1부 예배에 사회를 보던 그 교회 목사로부터 문자가 왔다. ‘명불허전’이라는 글자였다. 내 수업을 듣는 제자 목사인데, 수업 중에 내가 칭찬과 사랑을 많이 해서 그 명성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바다.

‘명불허전’, 한자어로 ‘名不虛傳’은 ‘소문난 명성이 헛된 게 아니더라’라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역시 소문대로더라’라는 말이다. 그래서 나 대신 설교를 시킨 것 아니겠나. 그의 설교는 들을 때마다 내가 들은 최고의 설교였다. 질문을 느낄 겨를도 없이 꼭 배우고 싶어야겠다는 도전을 받은 한다. 3부 예배 설교를 잔뜩 기대하고 집에서 출발했다. 예배 시작 전에 그를 만났다.

7월에 미국에서 만난 이후 오랜만에 처음 만난 셈이다. 너무나 반가웠다. 예배 시간이 되어 잠시 헤어졌다. 탁월한 그의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어

서 너무 좋았다. 역시 ‘명불허전’이었다. 나 대신 설교자로 세운 보람이 있었다. 내 설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1월에 부흥회 2건, 특새 4건이 잡혀 있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설교에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강하게 들었다.

‘일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를 찬양하고 완성한 나이지만, 아직도 수정보완할 점이 있음을 깨우쳐주었다. 역사상 그렇게 설교 잘하는 이가 존재했을까 싶은 정도로 감탄이 절로 터져나왔다. 혼자 듣기엔 너무 아까운 설교였다.

일반적으로 두 부류의 설교자로 나눌 수 있다. ‘본문에 강한 설교자’와 ‘전달에 강한 설교자’ 말이다. 전자가 목회하는 교회는 대부분이 성도 수가 많지 않고, 후자가 목회하는 교회는 대형교회로 부흥한 교회인 경우가 많다. 성도들은 보통 본문이 좋은 설교보다는 전달이 탁월한 설교를 좋아한다.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은 본문 얘기를 별

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 대신 모셨던 그 목사의 설교는 본문에서 영양만점의 재료를 캐낸 후, 최고로 맛있고 행복한 식단을 준비해서 제공한다.

그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고 관통하는 성경실력이다. 그것을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엮어가면서, 최고로 감동 받을 만한 탁월한 예화까지 활용하여 청중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본문에서 어떻게 저런 보화를 캐낼 수 있을까?’ ‘그걸 또 어떻게 저렇게 빼어난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리도 청중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방식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

그의 설교를 듣는 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설교라 생각해보라. 한 번 듣고 나면 다시 듣고 싶고, 또 다시 다시 계속해서 듣고 싶은 설교가 바로 그의 설교이다. 4월에 직접 들었던 설교 한 편도 지금까지 매순간 떠올리며 살게 만 들 정도로 임팩트 강한 설교였다. 이번 설교 역시

영원히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지상 최고의 설교가 아닐까 싶다. 영아권의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도 많이 알고 있지만, 이처럼 설교의 모든 장점을 다 갖추고 있는 설교자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설교를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으면서 내 설교의 약점을 수정보완할 생각 뿐이다.

그 설교가는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 할 정도로 훌륭하다. 그를 담임으로 모셨던 장로들과 성도들은 자기 담임에 관한 얘기를 할 때면 언제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소개한다. 그에 비하면 나는 4류 목사라 판단될 정도다. 이처럼 위대한 설교가를 만나 가까이서 알고 배우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건 꿈같은 일이다. 이런 그를 자랑하는 내가 오늘도 너무 자랑스럽다.

제직의 자세

김창환 목사
서울 강서교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요 12:26).

“그리고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딤후 3:13)

1. 직분의 정의

1) 하인(요 2:5)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음식을 나르는 자를 가리켜 사용했다. 그러므로 하인은 음식의 공급자이다. 제직 신령적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공급할까? 항상 준비하였다가 필요로 하는 때에 요청이 있는 곳에 거절하지 않고 공급한다.

2) 사환(마 22:13)

사환이 갖는 그 뜻은 심부름하는 자라고 하겠다. 제직 직분자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드는 자이다(요 12:26).

3) 섬기는 자(고전 16:15; 10:35-45)

섬기는 자는 섬기기로 작정된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이외의 사람은 다 상전이다.

4) 종 또는 일꾼(고후 6:4)

종 또는 일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꾼(종) 제

직 일꾼(골 1:25)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제직 일꾼(머슴, 노동자)으로 선한 일꾼(딤후 4:6), 신실한 일꾼(골 1:7, 4:7) 등으로 어떻게 봉사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5) 사역자(고전 3:5)

직분자는 제직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을 이루어야 한다(롬 13:4).

2. 제직의 사약

1) 모든 예배와 회회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2) 맡겨진 직책과 분담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3) 십일조와 시간적 봉사에 있어서 일반 교우들의 분이 된다.

4) 병든 자와 슬픔을 당한 자를 돌아보기를 힘쓴다.

5)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와 성실과 양보로 덕을 세운다.

6) 교회와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하여 조력하며 새로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유기적인 단결을 힘쓴다.

7) 절대로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만한 말을 삼가고 성도 간의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항상 서로 격려한다.

8) 제직 모든 사업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직접 참여하고 언제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9) 자기의 말은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모든 직분에서 항상 협조하기를 힘쓴다.

10) 성경 애독과 기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한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3. 제직의 자세

1) 자원한다.

교인의 직분은 스스로 맡는 것이 아니라 조직기능(당회)을 통해서 임직 하므로 자원은 임직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

라 술선수범하는 것을 가리킨다.

2)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다.

제직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한 부분이다. 열성이 어떤 인간의 방법에 치우치는 것을 금하고 공의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3) 더러운 이를 위해서 아니한다.

제직 모든 직은 근본적으로 봉사직이다. 교역자와 관리직원을 제외한 어떤 직분도 금전을 요구하는 봉사자가 될 수 없다. 제직을 받자하여 교회나 사회에서 이권을 얻을 수 없다.

4) 즐거움으로 한다.

자원하는 태도에서 봉사의 즐거움을 갖게 된다. 보수를 받지 않아도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직 일을 해야 즐거워지니까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5) 주장하는 자세로 아니한다.

성경에는 [다스린다]는 말의 뜻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다스림은 권세를 가리키고 교회를 향한 다스림은 [양장선다]는 말이다. 교회 직분자는 봉사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서 자기의 주장대로 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회가 수임한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6) 분이 되므로 봉사한다.

신앙생활에서 분이 된다(집회참석, 봉사시간, 재정 등 전도). 사회생활에서 분이 된다(가정, 생업, 행동, 몸가짐, 언어).

4. 제직의 10가지 수칙

1) 제직은 제직회에 참여하며 유교시에는 담임 목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제직은 자치기관의 부서에 연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임회해야 한다.

3) 제직은 신앙, 봉사, 언어, 행동 기타의 모든 면에서 분이 되어야 한다.

4) 제직은 성경을 읽고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병든 자와 약한 형제를 돌아보고 권고하며 시험이든 자에게 좋은 것이 되며 위

로자가 되어야 한다.

5) 누구나 십일조 헌금을 의무적으로 자원해서 해야 하며 모든 헌금에 술선수범을 해야 한다.

6) 자기의 말은 각종 봉사위원의 사명을 기억하고 담당해야 한다.

7)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도록 노력하며 예배 후에는 비품을 정리하며 교제를 나누고 문안을 한다.

8) 제직은 1년 중에 새 교인 2명 이상을 교회에 인도하여 주일 낮, 밤, 삼일은 꼭 교회에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9) 제직은 교우들과 금전관계를 삼가고 이웃에 대한 덕을 세워 빛이 되는 생활로서 항상 전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10) 제직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의 사업에 앞장을 서서 술선수범이 되어야 한다.

5. 교회 생활을 위한 제직의 십계명

제1 계명 - 예배드림을 최우선으로 삼으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영적 즐거움을 누리라. 교회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성경공부 와 말씀연구를 병행하라.

제2 계명 - 교회와 평신도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자신의 교회와 지도자를 최상급으로 여기라. 중보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헌신이다.

제3 계명 - 반드시 봉사하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 봉사를 취미화 하라. 긍정적 자세로 은사를 따라 봉사하라.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갚아주신다.

제4 계명 - 교회 생활과 가정 및 직장 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 교회의 기כון 가정을 돌보라. 교회생활을 직장 및 사회에서의 성공과 병행되게 하라.

제5 계명 -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 목회자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 목회자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제6 계명 - 물질을 대고 심으라.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헌금하라. 자발성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라.

제7 계명 - 새 사람을 받아들여라. 관계 전도하는데 힘을 쓰라. 불신자를 친구로 삼으라.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새 신자를 받아들여라.

제8 계명 - 말을 조심하라. 최고의 유산은 당신의 언어다. 비판이나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 언어로 바꾸라. 언제나 밝고, 적극적인 말을 하라.

제9 계명 - 소그룹에 참여하라. 셀 모임에서 삶을 나누어라. 셀 기도회 등 목회적사이 같은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믿음으로 가깝게, 생활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제10 계명 - 교회 밖의 신자가 되라. 선교와 구제를 위해 축복을 유포하라. 모이는 교회' 일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이원적 신앙생활을 극대화하라.

6. 예화: 교회 학교 교사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는 84년의 생애 중에 67년간을 주일학교교사로 봉사하였다. 미국의 23대 해리스 대통령이 체신부장관을 맡아 달라고 했을 때, 장관일로 인해 주일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직을 지키지 못한다면 장관직을 맡을 수 없다고 하였다.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 못합니까?”라고 묻자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한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의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관입니다.” 워너메이커는 장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4년의 장관 임기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였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은퇴 후에 고향 교회로 내려가서 평생도록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하였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직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러기에 평생을 바쳐 주를 위해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멘토링(1): 모세를 리더로 만든 장인 이드로

정태희 목사
DCMI 선교회 대표



정태희 목사의 삶과 리더십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다 보다.”

모세가 완숙한 리더로 만들어지기까지는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있다. 리더십 스쿨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는 순간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리더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행착오 (실패)가 우리를 더 나은 리더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모세.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탄생에 대해 서술하나 모세의 부모가 레위인이었다는 것 이외에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부모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출애굽기 6장의 족보에서이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애굽의 왕가에서 받았던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모세가 받았던 탁월한 교육은 행 7:22a(“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에 짧게 기록되었을 뿐이다. 길고 자세한 서술은 어쩌면 피서술인의 경력이 초라할 때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리더라면 그의 경력에 대한 설명은 사족(蛇足) 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애굽 왕가에서 교육받고 탁월한 리더 (행 7:22b)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로 성장한 모세가 나이 80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 (레 12:3)이라는 사실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나이 80이 되도록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는 사람이 겸손하지도 온유하지도 않다면 오히려 기괴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80 노령에 부르심을 받아 120이 되기까지 사역했던 모세가 탁월한 리더로 만들어졌던 것은 애굽 왕궁의 리더십 교육이 라기보다는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장인 이드로의 멘토링 때문이었다.

존 맥스웰은 리더십의 발전 단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가장 낮은 단계의 리더십은 <지위>를 통한 리더십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리더를 따르는 이유는 리더가 갖은 지위 때문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은 두 번째 단계의 리더십은 <허용>의 단계이다. <지위>의 단계에서 리더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개발하면 사람들은 리더와의 관계로 인해 리더가 라드할 것을 허용한다.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리더들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할 때 이들은 리더십의 세 번째 단계인 <성과>의 단계에 이른다.

이제는 리더의 지위나 리더와의 관계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특정 리더가 이루어 놓은 성과로 인해 그를 따른다. 리더십의 전성기이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대부분의 리더들이 여기에서 끝난다는 사실이다. 리더가 나아가야 하는 다음 단계의 리더십은 <인재개발>의 단계이다. 이 단계의 리더는 자신이 이룩한 성과나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에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리더가 어떤 성과를 남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더가 어떤 인재를 만들어내느냐이다. 리더가 남긴 성과는 또 다른 리더를 키워낸

으로 증식한다. 멘토의 일이 멘티를 통해 넓어지고 깊어져서 차세대로 전달되게 하는 것은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재생산’의 리더십이다. 이드로에게 멘토링을 받은 모세는 여호수아를 멘토링해 탁월한 리더로 만들어 놓았다. 나오미는 롯을, 엘리야는 엘리사를, 모르드개는 에스터를 멘토링하여 구약의 역사에 각기 일획을 남기게 하였다.

수많은 사람에게 사역했으나 12 제자를 멘토링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마 28:19 a). 바나바의 멘토링을 통해 신약세계의 탁월한 지도자가 된 바울 역시 멘토링을 통해 디모데, 디도와 같은 차세대 리더를 생산해 내었다. 그는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당부하였다. “내 아들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 2:2). 존 맥스웰은 목회자들을 향해 이렇게 당부한다. “큰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태우지 마십시오. 대신 큰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위해 큰 교회를 세워줄 것입니다.”

이드로의 멘토십을 통해 모세는 조직관리의 능력을 배웠다. 개인 리더십에서 팀 리더십으로의 획기적 전환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한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리더십은 100 미터 달리기가 아니다. 함께 가야 하고 멀리 가야 한다. 이드로를 통해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배운 것은 팀 리더십뿐이었을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출 3:1)의 딸 시므라와 결혼하여 가정을 만들었다. 이드로가 어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디안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 중 하나이다 (창 25:2). 그렇다면 미디안과 미디안 족속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모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기간은 장인과 함께 지내었던 기간이다.

출애굽기 18 장에서 모세가 장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설명하자 이드로는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만이 가장 크고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만일 이드로가 여호와 신앙의 소유자였다면 추정이 사실이라면 멘토링은 모세를 리더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또 사명자로만 들었다. 아직 멘토링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목회자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社 說

젊은 세대용? 모두의 ‘새한글성경’

대한성서공회가 ‘새한글성경’을 출간했다.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교회학교 학생들도 읽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상 용어와 문체의 현대화를 꾀한 게 특징이다. 성서공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새한글성경’을 처음 공개했다. 공회 측 설명에 의하면 젊은 세대를 고려해 성경 번역에 한국어 어법에 어긋나지 않는 용어와 방식을 사용해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어순과 어원까지 고려해 직역했다고 한다.

‘새한글성경’은 다음 세대와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친근하게 대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비신자들이 성경을 처음 접할 때 거부감이 덜하도록 접근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회 전통어는 쉬운 말로 번역하고, 어려운 한자어는 괄호 안에 같이 넣어 의미도 명확히 한 건 매우 긍정적인 변화에 속한다.

구어체를 정리하면서 한 문장이 50자 내외 16어절 정도를 넘지 않게 한 점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해 공회 측은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세대가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원문의 문학 장르를 살려 원문의 다채로운 문체가 번역문에서도 드러나게 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장막은 ‘텐트’, 휘장은 ‘커튼’ 등 흔히 쓰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고 기근은 ‘굶주림’, 적신은 ‘힐벗함’으로 바꾸는 등 낯선 단어를 쉽게 풀었다. 또 ‘규빗’ 등 현재 쓰지 않는 도량형 등을 공식 통용되는 ‘미터’ 등으로 바꾼 것도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교회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한글’ 성경을 개정해 지난 1998년에 나온 ‘개역개정판’ 성경이다. 가장 모범적인 한글 성경의 맥을 잇는 성경이란 점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의 표현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개역개정판’ 성경도 기존 ‘개역한글’의 낡은 문체를 상당 부분 답습하고 여전히 몇몇 오역들이 수정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내에서 ‘개역 개정판’ 성경을 고수하는 분위기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이전에 한국교회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와 그 후 나온 ‘표준 새번역 성경’에 대한 거부감이 심화된 탓도 있다. 다양한 번역본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성경에 대한 선택권을 한층 좁게 만든 영향이 없지 않다는 말이다.

한국교회의 성경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은 다양한 번역본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성경 번역상에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개역성경’만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작업이 진행되는 현실이 잘

말해준다. 그런 현실에서 젊은 세대들을 위한 읽기 쉬운 성경이 새롭게 번역돼 출판된 건 반가운 일이다. 디지털 세대를 겨냥했다고는 하나 일반 성도들이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기에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다만 이 성경이 한국교회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기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 보인다. 일단 쉬운 용어, 간결하고 현대적인 문체가 읽기도, 이해하기도 쉬운 게 사실이지만 성경이 지닌 권위와 무게감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인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한국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으로 받든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과거엔 성경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거나 걸표지에 얼룩이 묻어도 불경하게 여길 정도였다. 교회 주일예배시 대표 기도자가 “하옵소서. 원하옵나이디” 등 19세기에 쓰던 구어체를 여전히 쓰는 것도 그런 이유에 서일 것이다.

‘새한글성경’에 아쉬운 점도 있다. 번역자의 주관 이 본문에 자주 개입하는 문제다. 예를 들어 시편에서 시인이 하는 기도와 혼잣말을 따로따로 명사해서 적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다. 또 성경을 소리 내 읽을 때 그 운율을 생각하지 않은 번역이란 생각도 지울 수 없다. 눈으로 읽고 이해하기엔 더없이 좋지만, 낭독의 즐거움은 개역 성경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면 이번에 출판된 ‘새한글성경’은 장점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따로 주석을 찾아볼 필요가 없고, 초신자들의 진입 장벽인 낯설고 생경한 용어들이 익숙한 표현으로 대폭 바뀌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구약 책임번역자인 박동현 교수(장신대 은퇴)는 “복음은 이 세상 모두를 위한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익숙한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며 “해외동포, 북한 주민 등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특히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했다.

중세 암흑기에 교황과 사제 등 교권주의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마르틴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우리 모두의 성경으로 돌려주었다. 그런 귀중한 성경이 오랜 세월 성도가 정에 방치돼 장식품과 하고 있는 요인은 아무래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는 번역상의 난제에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들을 개선한 ‘새한글성경’ 출판을 계기로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10-5169-8291
광고문의 010-5169-8291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마음투자, 5개월간 15만5000건 심리상담 진행

7월부터 12월초까지 4만2000명 이상 신청 전반적 만족도 89.9점...재참여 의향 높아 복지부, 우수 지자체 및 개인에 시상·표창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결과 5개월 간 15만5000건이 넘는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일까지 4만2167명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했고 15만5317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1222개소, 제공인력은 5383명으로 등록돼 있다. 조사 전문기관이 10월21일부터 11월17일까지 바우처 8회기 완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89.9점으로 나타났다. 향후 재참여 의향 94.2점, 주변 추천 의향 93.2점,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88.9점 등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서비스 이용자 박모씨는 결혼 10년차에 남편과 갈등이 커지던 중 수차례 심리상담을 받으며 안정을 찾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상담을 통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편과 아이에게 넘겨준 채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며 "이제 내가 할 일은 상담사가 내게 해주었던 것처럼 스스로 마음을 더 살피고 지켜주는 일임을 알게 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5개월 간 사업 추진과 운영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우수 지자체로 서울 중구·강남구, 울산 남구, 충남 당진시, 전북 김제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세종시 등 10개 지자체가 최우수상을, 경남 함안군 등 20개 지자체가 우수상을, 강원 원주시 등 32개 지자체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업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학회 관계자 5명, 지자체 공무원 11명, 유공기관 담당자 11명 등에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주어졌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 및 체험수기를 통해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건강 돌봄과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우리 기자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 '모두미술공간' 개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12일 오후 4시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 '모두미술공간'을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용호성 문체부 1차관과 개관 전시에 참여한 강승탁 작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모두미술공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 개관에 이어 시각예술 분야 표준전시장인 '모두미술공간'을 조성해 국정과제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모두미술공간은 서울역 등 대중교통 수단과 가까운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공간을 마련해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장

(911㎡)과 소통공간(485㎡)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장에서는 장애유형별 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한 기획 전시를 제공한다. 장애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가 대관한 전시에도 장애유형별 접근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통 공간에서는 장애예술인들의 작업과 교류를 뒷받침한다. '장애예술인 창작 아카데미' 등 전문원의 다양한 교육 사업도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모두미술공간에서는 이날부터 내년 2월7일까지 개관전 '감각한 차이'를 개최한다. 장애예술인 작가 4명과 비장애예술인 작가 2명이 장애를 감각의 결핍이 아닌 감수성이라는 예민함을 통해 발견된 창의성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회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비롯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작품도 만나 볼 수 있다. 장애예술인들의 창작과 발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과 단체에 우선 대관과 대관료 할인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협력 사업과 장애 예술 담론, 전문예술교육 행사 등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 공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용 차관은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모두미술공간'을 통해 장벽 없이 예술세계를 펼치고, 국민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는 예술의 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장애예술인들이 더욱 많은 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다운 기자

늘봄학교 해보니...92%가 "내년에도 할래요"

교육부, 늘봄학교 운영교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85.7%...86%는 양육·돌봄 부담 경감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오후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 수요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가 2학기 늘봄학교 운영교 258개교의 학생 1731명, 학부모 2580명 등 총 431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내년 학생 참여 희망률이 92.7%였다. 학부모 만족도는 85.7%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했던 1학기 조사에서는 만족도가 82.1%였는데 3.5%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 86.1%는 늘봄학교로 양육과 돌봄 부담이 경감됐다고 응답했다. 또 72.9%는 사교육 시간이나 비용이 줄었다고 답했고 77.5%는 늘봄학교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됐다고 생각했다. 초1 학생의 경우 87.4%가 늘봄학교를 재밌었다고 응답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 고양시 소재 컨테스에서 '2024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늘봄학교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체험교실과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도 접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농구, 티볼, 볼링, 레고 경주, 전통놀이 등 다양한 스포츠를 한 곳에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 형태의 늘봄 주제 공원도 박람회 기간 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에는 늘봄학교가 2학년까지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개혁 과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카카오같이가치, 1억원 기부쿠폰 발행... "연말 기부 참여 독려"

카카오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가 '모두에게 다정한 건네고픈 연말'이라는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연말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카카오같이가치는 기부에 앞장서서 이용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카카오가 이용자를 대신해 기부하는 '1000원 기부쿠폰'을 선착순 10만명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제공한다. 기부쿠폰을 받은 이용자는 ▲독거 어르신 주거 개선 ▲해외 분쟁지역 주민의료 지원 ▲보호소 유기견 치료 ▲자립준비청년 창작가 멘토링 지원 ▲결식우려 아동 식사 제공 등 총 5개의 추천 모금할

중 하나를 선택해 기부하면 된다. 이용자는 각 모금함에 원하는 금액만큼 직접 기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연말에 돕고 싶은 이웃을 댓글로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카카오 프렌즈 춘식이 인형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같이가치는 지난 11일 자원봉사자 70명과 함께 구룡마을 독거 어르신들에게 겨울용품 전달했다. '가치상점 시즌1 캠페인' 기부금으로 구매한 연탄과 '카카오메이커스X프로젝트슬립 앙탈 이불 기부 캠페인'으로 확보한 앙탈 추가 이불을 전달했다. 가치상점 시즌1 캠페인은 10월부터 지

난달까지 '독거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라는 주제로 모금을 진행해 약 1억4000만원의 누적 기부금을 달성했다. 기부금 전액으로 총 14만6000여장의 연탄을 구매했으며 내년 3월까지 전국 독거 어르신 730여 가구에 200장씩 전달할 계획이다. 강승원 카카오 같이가치기획 팀장은 "단순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으로 기부의 온기를 느끼며 소외 없이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다운 기자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건강약자 의료비 부담 덜다

건보공단, 1만4천명 추가 의료비 부담 경감 예상 내년 특례 적용 희귀질환 1248→1314개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66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입원 20%, 외래 30~60% 수준이었던 본인부담률은 산정 특례 적용 시 입원 외래 모두 0~10% 적용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항목

에 해당하며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항목 및 선별급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이완불능증 등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특례를 적

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약 1만4000명의 추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복지부, 질병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도 높은 희귀질환을 발굴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우리 기자

성누리건설 주식회사
SUNGNURI CONSTRUCTION Co., Ltd

대표이사 전 용 건

믿음과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술개발 및 시공 품질관리로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경기사무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4-21 T. 031-392-0812-3
영남사무실 경상북도 안동시 복순원로 354-12 201호 T. 054-857-9274
호남사무실 전라남도 여수시 민성로230-11 T. 061-653-3292

Email: snr0812@naver.com

목회상담치유

왜 그런가?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목회의 적응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목회지를 자주 이동 하는가?
 나는 목회를 실패한 것일 가?

◆ **답답하고 허전하고
 심란할 때 상담해주세요!**

이 중 운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6길4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2.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3.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4.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 5.토지: 2,756m² (833.69평)
- 6.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a(40평)
- 7.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넷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전도용 사랑의 건방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다니엘서2장3절)

믿을 수 있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금봉제과 제품입니다



심희승 대표(화창)
 010.9289.2442. 02.2273.7247.
 신한은행.110.191.288484.

문의: 010 9289 2442

허리 관절통증 **대** 무료체험행사

1개월 이상만 복용하셔도 재구매율 85% 이상 **▲ 무료체험 후 효과 있을시만 주문가능합니다.**

무료체험기회

※ 꼭 체험 후에 구입하십시오 ~

체험 후 효과를 보신 분만이 구매하실 수 있고 중복체험은 불가합니다.



식품제조허가 : 제 2020-0029046호 특허등록 : 제 30-1204880-00-00호

(주)관절건강에서는 한방연구에만 40여년을 종사한 한방 제품을, 각종 관절의 통증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자로 주소, 성함을 보내주시면 꼭 무료체험용을 보내드립니다.

- ※ 계단보행이 불편하신 분
- ※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신 분
- ※ 무릎, 허리, 발목, 목등이 불편하신 분
- ※ 이번 기회에 관절건강을 찾고 싶은 분

10일분 무료체험 (주)관절건강 꼭~보내드립니다! 가격도
무료체험 택배비 4,500원만 착불!
 주문은 꼭 문자로만! **010-6335-0165** 저렴합니다!
 02) 2268-0719

경기 예술 신학원 개원(학부)

문화 전쟁의 시대 마귀 문화와 하나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또한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경기예술신학에 개원 목적을 둔다



학장 장대수 박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 (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 (p.hD) 철학박사

경력 및 출연작
 전 극동방송 드라마 성우
 대한민국 연극제 최인훈작. 한스와 그레텔 (주연)
 씨르프르작, 이강렬연출 출구없는 방 출연 (주연)
 세익스피어 작. 오셀로 출연 등



사무처장 경기만 목사

학력 및 경력
 한동대학교 영문과 졸업
 대구가톨릭 교육대학원 장신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수 유제상 목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한영실천신학대학원 졸업
 전 KBS 드라마 성우
 연극출연작 육혈표 강도



교수 강두남 박사

학력 및 경력
 개신대학원대학교 목회학석사
 개신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구약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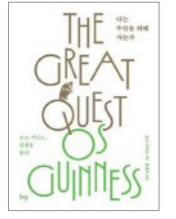
학 과	연극선교학과
지 원 자 격	고졸이상학력
종 교	기독교세례자
모 집 인 원	약간명
원 서 지 원	25년 1월부터
개강및수업	3월 첫주
학 제	4년
토요일만 집중수업 졸업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면 개혁신학교 신학 연구원에 입학함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지구촌 복음 방송

대표 장대수 목사 | 문의 010-6325-3916 |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6-2 현대프라자 4층 시흥사랑의 교회 내

오스 기니스, 인생을 묻다

신간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나서라고 촉구하는 목소리이며 동시에 구도의 길에 나선 사람에겐 길잡이 역할을 명료하게 보여 주는 안내서다. 저자 오스 기니스 작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의미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음을 발견한다.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의 평범한 것들을 포함한 온 우주의 존재에 대한 경탄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인간이 호흡과 음식과 물 없이 살 수 없듯 의미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는 곧 삶의 의지와도 같고, 삶의 목적을 탐색하는 것은 삶을 최대한 풍성히 누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추구이기 때문이다. 그는 추구의 단계를 하나하나 제시하고

추구의 여정을 안내하며 독자 자신만의 추구를 시작하라고 독려한다. 추구에 따르는 가장 큰 보상이 삶다운 삶, 충만한 삶을 누리라고 도전한다.

저자는 "인생은 여정과 항해와 원정대 순례다. 각자의 긴 모험이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여정의 시작과 끝의 중간 어디쯤을 지나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출생일을 고르지 않았고 죽을 날도 모른다. 스스로 원해서 생겨난 게 아니다. 그러나 좋은 삶든 지든 우리는 살아 있으며 시간을 역류할 수는 없다. 시간이 우리를 앞으로 떠밀기에 정체가 없다. 좋은 삶든 우리 삶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피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이 인생길을 어떻게 최대한 누릴 것인가는 우리가 알아내기에 달려 있다. 인생철학은 전기를 뛰어넘지만, 만족스러운 철학의 뿌리는 우리 삶의 이야기인 전기와 늘 얽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경험으로 보아 신앙군의 차이를 가장 강하게 부각시켜 주는 두 가지 이슈는 인간의 가치의 문제(자연히 목적과 성취도 포함한다)와 악과 고난의 문제다. 나아가 시간, 자유, 정의, 용서, 공동체 등 여러 다양한 주제에서도 차이가 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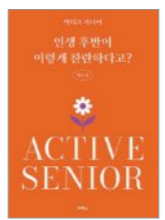
히 드러난다. 구도자를 떠미는 이슈가 무엇이든 그것을 세 가지 신앙군의 렌즈로 보면 결과는 판이하게 갈린다. 어떤 신앙과 세계관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실제, 진리, 시간, 역사, 자유, 정의, 평등, 용서, 평화의 모든 달라진다. 각 경우마다 대조법은 명료성의 어머니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마지막 단계에서 내딛는 신앙의 걸음은 깊은 사고를 바탕으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아우른다. 지식과 그것이 무르익은 확신과 다시 그것이 무르익은 신뢰다. 신앙에 지식이 포함되는 이유는 대상에 대해 전혀 모른 채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에 확신이 포함되는 이유는 신앙의 내용에 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확실히 진리여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신앙에 신뢰가 포함되는 이유는 신앙이 단지 개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인격체 곧 하나님에 대한 전연의 헌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엄청난 결과가 뒤따른다. 인생을 통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분을 향해 귀향 여정에 오를 때보다 더 자유롭고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순간은 없"고 했다. 최승연 기자

액티브 시니어

신간 '인생 후반이 이렇게 찬란하다고?'

바야흐로 백세 시대다. 은퇴 이후,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인생 후반의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향해 저자 박수용 장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라고, 남은 인생을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자고 도전한다.



이 책은 건강한 삶의 핵심이 되는 영혼육 관리부터 관계, 재정, 일상 관리 그리고 인생 후반부를 맞이한 크리스천의 영적 태도와 삶의 습관까지 성경 말씀을 기초로 저자의 경험과 함께 풀어 놓았다.

이 책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더욱 맛있게 쓰임받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수한다. 인생 후반이 시간을 낭비하고 버티는 인고의 계

절이 아닌 한 독자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한 빛나는 성숙의 계절이 되길 저자는 소망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나이가 들면서 하루하루가 반갑지 않은 이유는 비전이 없기때문이다. 열심히 일하다 퇴직을 하면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또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70세 이후에 은퇴를 한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사역을 내려놓으면 허탈감이 휩쓴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비전과 소망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 주고자 한다. '이제 은퇴했으니 나는 끝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남은 인생 더욱 하나님께 맛있게 쓰임 받도록 주님과 함께 새판을 짜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책에 담았다. 건강한 삶의 핵심이 되는 영혼육 관리부터 관계, 재정, 일상 관리, 그리고 인생 후반부를 맞이한 크리스천의 영적 태도와 생활 습관까지 성경 말씀을 기초로 제 경험과 함께 풀어 보았다"고 했다.

이어 "인생 후반전을 계획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우리 몸도 빠가 튼튼하고 빠르게 잘 세워져야 다른 부분들이 보호되고 장기들이 긴밀히 제 역할을 잘 감당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모든 분야에서 건강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생활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 말씀 독상을 통해 영적 근력을 키워야 한다. 영성 관리의 핵심은 말씀 생활이다. 예수님을 늘 말씀과 함께 사셨다. 우리도 말씀을 마음을 새기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말씀을 가까이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자라고, 말씀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자란"고 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다. 육체도 쇠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우울해진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담담히 살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며,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강한 정신력은 결코 내가 잘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저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웰다잉의 첫 번째다.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이다. 나이가 들수록 옆에 남아 있는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다. 배우자에게 잘 대해 주길 바란다. 배우자와 행복한 동행을 하길 바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12월, 작가들의 말말말



김현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내 인생의 1막은 캐나다의 특수강 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가면서 끝났다. 기업이라는 것이 유기체와 같이 끊임없이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를 먹는다는. 여기에 수많은 직원의 노력과 열정을 먹는다. 내가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키웠던 삼미그룹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 요즘 한국의 방위 산업이나 현대기어의 약진은 수많은 회사의 탐과 눈물 덕분이다. 그런 점에서 삼미그룹의 역할은 다른 소비재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기업을 키운 회사보다 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용조 목사를 만난 것은 행운이고 축복이다. 하용조 목사가 추천한 하와이 코나에서의 DTS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결혼 30주년에 만난 DTS 과정은 그냥 암 투병 환자로 끝났을지도 모를 내 삶을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멋진 선교사로 거듭나게 했다. 김현철 & 장병희 '삼미 슈퍼스타가 미션 슈퍼스타'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 41:2) 모든 감사와 찬양,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에게 적합한 배우자가 나타났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표현해야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저절로 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솔직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고백할 말을 알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을 고백했을 때 상대방이 수용함으로 인해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성중 '결혼을 위한 100일 기도'



마태복음 11장 28-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울 것인가? 예수님의 은유함과 겸손을 배우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는 것이다.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주님을 만나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은유와 겸손이다. 우리는 이 성품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임팩트를 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의 성품에 은유와 겸손이 반드시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호통을 치거나 욕박지르며 사람을 통솔하지 않았다. 은유한 성품과 섬기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잔잔한 감동이 있었다. 내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이런 성품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고, 그 중심에 은유와 겸손이 있다. 송민호 '우리가 가야 할 길'

비만, 암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

운동의 혁명을 제안하는 책, 건강을 위한 인생 튜닝법 제시

비만이 머지않아 흡연을 대신해 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독일 의학 저널리스트 외르크 블레하는 저서 운동 혁명을 통해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며,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경고했다.

책 《운동 혁명》은 블레하가 25년간 생물학자, 의사, 교수 등

을 만나며 수집한 최신 건강 정보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집필했다.

저자는 "병적 비만은 장운동을 느리게 하고, 이로 인해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지적하며, 발암물질이 장 점막세포를 공격할 시간이 늘어나는 점을 경고했다. 블레하는 우리의 몸이 고정된 구조가 아니며, 스스로 재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과도한 섭취와 부족한 운동으로 인해 비만,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척추측만증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덜 먹고 더 움직이는 생활 방식을 강조한다. 운동이 약물 치료나 수술보다 뛰어난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각종 데이터와 사례로 뒷받침하며,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건강 관리법을 제안한다.



책은 단순히 운동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 사례를 통해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독자들에게 병을 이기고 나이를 되돌리는 인생 튜닝법을 제시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혜택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이 책은 건강을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이나래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즐겁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적기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왕인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요한2서 12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일단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 전인(全人)을 그 진리에 복종시키게 되면,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옥의 세력으로도 그 진리를 우리에게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진리를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주인으로 대접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생사와 관련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해 주시며 인쳐 주실 때 그 능력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구원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느니 차라리 같같이 찢기고 싶

고 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버팀목이요, 우리가 죽을 때의 위모요, 우리가 부활할 때의 노래요,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될 거라는 이 확신 속에는 얼마나 많은 자비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사실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진리 중에는 너무 기본적인 것들로 초보자를 위한 교훈이라서 우리가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린 아기에게는 부드러운 음식이 되지만 큰 어른들에게는 단단한 음식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진리는 괴롭지만 우리를 겸손하게, 그리고 조심하게 만듭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거라는 복된 진리는 우리의 소

망과 기쁨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합니다.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교리를 느슨히 붙들게 하려는 케병 오히려 더 단단히 붙잡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근거와 동기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많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구세주를 꼭 붙잡게 될 때까지 계속 그럴 것입니다.

진리에 거하는 이 사랑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사랑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교회사람 우리 교단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진리 속에는 물론 오류도 많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류와 싸우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본대로 우리의 형제는 여전히 사랑하면서 싸웁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 진리를 사랑하고 퍼뜨립시다.

찰스 스펀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날 새를 밝게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의의 전가의 교리 (2)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법적 청의의 개념은 죄인을 가상적으로 또는 허구적으로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로 죄인의 것이 되는 의의 전가에 근거하여 청의가 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언약의 개념에 근거한 그의 연합의 개념은 스스로는 도덕적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청의의 법적 특성만 만족시키게 한다. 고로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청의의 법적 특성은 의의 전가가 있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C. 청의의 이중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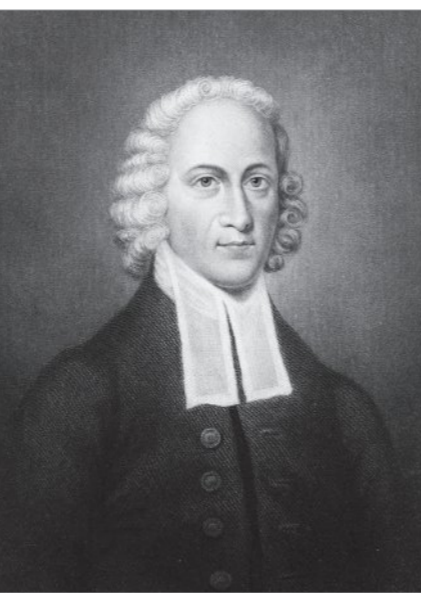
에드워즈는 "청의란 한 사람이 죄책과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생명의 상급을 보장하는 의가 그에 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17) 여기에서 에드워즈가 주장하는 것은 "청의는 두 가지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하나는 죄 용서와 화해를 통한 죄책의 제거로 이것은 단지 소극적(negative) 의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죄인을 적극적으로(positive) 의롭게 보이춤으로써 단순히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닌 것

이상으로 은총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18) 에드워즈의 강조는 청의의 결과는 죄책의 제거나 원래의 순수(original innocence)로의 회복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다. 즉 청의의 의미 속에는 "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적극적인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19) 에드워즈는 그 예를 먼저 아담의 경우에서 찾았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결과로 영생할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볼 때,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되는 그의 청의에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아담은 그가 그의 행위를 다 이루었을 때까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었으며, 그때 그의 청의는 [행위를 다 이루었다는] 확증이었다. [청의는] 그가 행위를 다 이루었으며 상급을 받을만한 자격으로 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승인이었을 것이다. 20)

에드워즈에 따르면 아담의 청의는 (1) 그의 순종에 대해 대한 하나님의 승인과 (2) 영생의 상급으로 이해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청의는 에드워즈에게 청의의 이중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예가 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죄 사함 외에도, 높임을 받는 적



극적인 의미가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두 번째 보증인 그리스도는 사실 그가 보증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청의를 통해 [같이] 청의되었는데 그가 아버지가 명한 일을 다 완성할 때까지 그리고 모든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의 명령을 다 준수할 때까지는 청의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그의 부활을 통해 청의된 것이다.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에 의해 다시 살아나셨을 때(벧전 3:18), 육신으로 다시 나타나신 그가 성령에 의해 청의된 것이다(딤후 3:16). 하

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청의하셨을 때, 죄의 모욕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셨으며 그(죄)로 인한 더 이상의 고난으로부터 사하셨을 뿐 아니라, 그가 한 일에 대한 상급으로 그를 영생과 존귀의 시작으로 옮기셨다. 21)

그리스도의 청의를 에드워즈는 (1) "고난으로부터의 놓임"과 (2) "영화의 상급"으로 이해하면서 아담의 가상의 청의에서 없었던 죄로부터의 사함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청의에서는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드워즈는 믿는 자의 청의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청의의 특성을 따르고 있음을 지적한다.

신자의 청의는 죄 사함 또는 죄책으로부터의 방면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의의 상급인 영광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청의를 통해 이 이중의 효과(joint benefits)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2)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청의는 단순히 아담의 원죄 이전의 상태로 복귀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상급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화평을 누리는 것" 즉 죄 사함 이외에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청의의 결과/효과로 내포된다는 것이다. 결국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우리가 청의의 이중 효과/혜택(remission and reward)을 누리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의 연합의 결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청의의 결과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청의의 효과/혜택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써 에드워즈에게는 성도의 청의의 개념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의가 먼저 전가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차후에 그리스도의 의가 갖는 구속사적 의미가 청의의 이중 효과에 대해 어떻게 근거가 되는지 다루게 될 것이다.)

D. 하나님의 영광의 만족

하나님의 법의 관점과 하나님의 법이 준수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필요성을 추가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세우는 점에 있어서 중요하다. 예컨대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은 아담에게 있어서 영생의 길이였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써 영원한 행복을 획득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에드워즈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킨다는 관점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아담을 영원한 축복 가운데 두시기 전에 그의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즉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어 아담이 그 법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셨다. 이 법이 합당한 존귀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법의 만족을 요구하신 것이다.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담의 순종이 하나님의 법에 들렸을 존귀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만족을 하셨다. 23)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룸으로써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127)

로마서 10장 8절

8. But what does it say? "The word is near you: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is, the word of faith we are proclaiming;

But what does it say? :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The word is near you : 말씀이 네게 가까와

it is in your mouth : 네 입에 있으며 and in your heart," :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that is : 곧 ; the word of faith : 믿음의 말씀이라

we are proclaiming : 우리가 전파하는

▶중요한 단어, 속어
proclaim 선포하다. are proclaiming 현재 전파하고 있는

1. 선언[선포]하다 : The president proclaimed a state of emergency. -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The charter proclaimed that all states would have their own government. - 그 헌장에서는 모든 주 자체 행정부를 갖게 될 것임을 선언했다. // He proclaimed himself emperor. - 그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선포했다.

2. (격식) 분명히 보여주다 : ...의 표시 [징후]이다 : This building, more than any other, proclaims the character of the town. - 이 건물은 다른 어느 건물보다도 이 도시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준다. // His accent proclaimed him a Scot. - 그의 말투는 그가 스코틀랜드인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 His accent proclaimed him to be a Scot. - 그의 말투는 그가 스코틀랜드인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신명기 30장에서의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시대의 구원계획에 빛이 들어 언급하고 있다. 모세가 신명기 30:14 -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에서 언급했던 "말씀"은 "계명의 말씀"이었으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믿음의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고 바울은 확언한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 누구에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전파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선언인 것이다.

신명기 30:14

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4 No, the word is very near you: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so you may obey it.

골로새서 3:16-17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자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6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and as you sing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to God. 17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해석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9절

9.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 네가 만일 네 입으로--시인하며

; "Jesus is Lord," : 예수를 주로

and believe in your heart : 또--네 마음에 믿으면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 you will be saved. : 구원을 얻으리니

▶중요한 단어, 속어

confess 시인하다.자백하다. raise 올리다.살리다.소생시키다. save 구원하다.

신약적 구원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지극히 간명한 서술이지만, 지극히 분명하고도 알아듣기 쉽게 천명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이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은 이처럼 간단하고 쉽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되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

사도행전 2:23-24

23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4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23 This man was handed over to you by God's set purpose and foreknowledge; and you, with the help of wicked men, put him to death by nailing him to the cross. 24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freeing him from the agony of death, because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keep its hold on him.

사도행전 16:31

3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1 They repl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you and your household."

▶해석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백판기 목사(예수님사랑합교회)

묵상 책갈피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

본지는 [묵상 책갈피] 코너를 통해 신앙도서에서 은혜롭고 감명 깊은 내용을 선택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독자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의 소원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메마른 시기에 관해서 결코 이해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영혼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에게 친히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자신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신, 즉 하나님을 찾는 바로 당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신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여, 당신은 주님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두실 때에도 주님께 신실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셨다. 만일 주님께서 그와 같은 신실한 영혼을 찾아 내신다면, 다시 그 영혼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신실함에 대하여 갚아 주신다.

주님께서서는 그 신실한 사람을 풍성한 선하심과 부드러운 사랑으로 안아 주신다.

이제 이것은 당신이 이해해야 한다. 당신은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의 일부이다.

그러나 당신이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의 선천적인 성향들에 관해 알아야 한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주님께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한 메마른 시기에 당신은 주님께 대한 당신의 충성심(혹은 신실함)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있는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노력이 주님이 더 빨리 당신에게로 돌아오시도록 설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여, 내 말을 믿으라.

그것은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주님께 당신이 취해야 할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고 인내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

고 사랑하는 주님이 당신에게로 돌아 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행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감추셨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으라. 열정적으로, 그러나 또한 한 언제나 평온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경배와 경외심에서 나오는 침묵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림으로써 당신은 주님께 당신이 구하고 있는 것은 단지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도 알게 되겠지만,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있으므로써 얻는 이기적인 기쁨이 아님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당신이 경험하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잔느 귀용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생명의말씀사 P42-44

오늘의 예화

종교개혁자 녹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녹스는 스코틀랜드를 기독교국으로 만든 성도인데, 그는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고, 부정에 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기도 하다.

여왕 메어리 스튜어트가 구교 세력을 회복시키고, 개신교를 압박하려 할 때에 녹스는 용기 있게 일어나, 그것을 나라 지도자들에게 공개하고, 또 메어리 여왕이

구교도인 사촌동생 단리와 혼인한 일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때 여왕은 스파이의 말을 듣고, 녹스를 불러다 놓고 울면서 말하기를 "네가 내 혼인 건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녹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 백성의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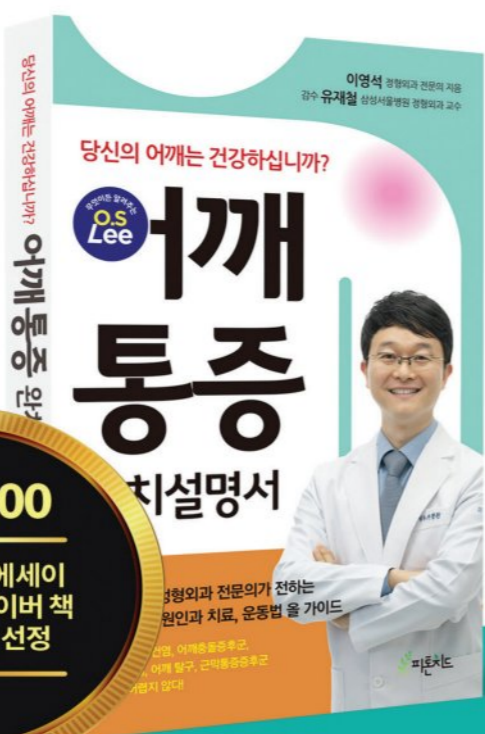
(一員)으로 지었으니, 나도 이 나라에 해로운 일에 대하여는 미리 경고할 책임이 있다"

1562년에 메어리 여왕은 녹스를 반역죄인으로 죽이려 했으나, 녹스는 의회에서 진리대로 분명히 말함으로써 의회는 그에게 무죄선고를 하였고, 또한 그의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드디어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도 나라에 해될 일이 있을 때, 국민은 경고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매 일반이다. (삼하12:7)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가정 온전한 헌신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온전한 즐거움을 모르고 있는 듯한 그들을 보노라면, 그들이 혹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광적인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릴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리스도께 억울하게 이용만 당하면서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은근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다음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인도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우리에게 그분을 섬기려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되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 아래 그분의 능력을 통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받으소서 / 마이클 그리피스

향유육합

은혜란 저절로 이루어지는 세계



산마루예수공동체엔 닭장이 있습니다. 며칠 전 모이를 주면서 닭갈을 꺼내려 갔습니다.

알을 꺼내려 동시에 손을 넣는데 삐약 삐약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알이 부화하여 병아리 3마리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산파 노릇을 하지 않았는데도 닭들은 제 알을 풀어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생각이 그 얼마나 단견인 것일까!

온 천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운행되는 것을

은혜란 저절로 이루어지는 한량이 없는 세계입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배부시는

이를 경이로 체험하며 이루어 가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산마루서신 제공

교회오빠 놀라운 사랑의 힘

피조물인 인간이 이 땅에 남기고 갈 보화는 무엇일까? 저는 주저 없이 사랑의 힘이라고 말한다.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한 자들은 남과 다른 생애를 대부분 살아간다.

그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존감이 건강하고 눈빛이 살아 있으며, 아름다운 얼굴과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본다. 또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확실히 보인다.

여기 믿음이 있는 한 여성생님으로 하여금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된다.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주었다. 그것은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그곳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일이었다.

조사를 마친 뒤 학생들은 그 청소년들 각각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썼다. 평가서의 내용은 모두 동일했다. “이 아이에게 전혀 미래가 없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 또 다른 사회학과 교

수가 우연히 이 연구 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그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 조사하라는 과제를 내었다.

학생들의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0명 중에서 176명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직업도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상류층이 많았다.

교수는 놀라서 그 조사를 더 진행시켰다. 다행히 그들 모두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교수는 그들을 한 사람씩 만나 직접 물어볼 수 있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모두 한결같았다. “여성생님 한 분이 계셨지요.”

그 여교사가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교수는 수소문 끝에 그 여교사를 찾아가서 물었다. 도대체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으로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었는가?

늘었지만 아직도 빛나는 눈을 간직한 그 여교



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지요. 난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에릭 버터워드)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으면 주님께서 매번 동일한 말씀을 하심을 듣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사랑하며 살아라.” 나는 평생에 피 묻은 주님의 그 사랑 안고 “그 사랑의 힘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 놀라운 사랑의 힘.

글/ 송진옥, 창골산 봉목사 제공

이야기하늘나라

예수님의 환상

페터사로라는 해군장교가 태평양에서 PT보트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는 무섭게 표효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눈을 떠보니 그의 몸은 캄캄한 망망대해에 판자 조각을 의지하고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어느덧 여명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는 그만 너무도 무서운 광경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에 온통 상어 떼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었습니다. 그의 다리에서 흐르는 피 때문이었습니다.

페터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20년 전 어릴 때에 다녔던 주일학교의 교실로 가 있었습니다. 그 교실 벽에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그 초상화의 예수님이 실제로 바다를 건너 팔을 뻗어

그를 향해 오시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페터는 부푼 가슴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해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해염치 나갈 때 상어 떼들이 물러서는 것같이 보였습니다.

그 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군 군함이 수평선 저쪽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망대에서 물이 튀는 것을 보고 조난당한 병사가 있음을 직감하고는 전속력으로 달려와 그를 구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닷컴 | RED COMPASS 선교회

오차 없는 예비하심

한 영국인이 자기의 50회 생일을 맞이하여 50년 동안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 50파운드의 돈을 자선 사업에 회사(喜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회사할 방법과 대상을 모색하던 중, 10파운드를 조지 물러가 경영하는 브리스톨시의 고아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생일날에 기부금을 보내려고 했으나 이상하게도 고아원 생각이 맴돌아 생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10파운드의 수표를 고아원으로 우송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물러의 고아원으로부터 기부금이 접수되었다는 영수증을 받았으며, 연말에는 고아원의 회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독지가들의 명단과 1년 간의 고아원 운영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기부금을 우송한 날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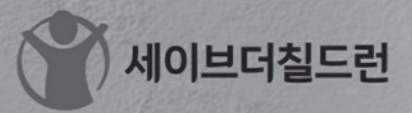
바로 앞에는 다음과 같은 조지 물러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돈도, 양식도 모두 바닥났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조지 물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방법으로 그의 쓸 것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닷컴 | RED COMPASS 선교회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기록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아동은 최소 147명입니다. 들리지 않았던 이 아이들의 이야기 곁에 함께해 주세요.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 바로가기

지역교회의 성인 성가대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5)



김영국 목사

모든 신자들은, 지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벧전 4:10)을 달성하는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영적인 은사(재능, 능력)를 적어도 하나씩은 부여 받으셨습니다. 지역교회 리더십의 목표는 모든 정상적인 구성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깨닫고 발전시키며, 그 재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소극적인 신자는 단지

그 교회의 사명을 억제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신의 영적 성장과 행복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음악은 영적 은사의 하나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함축적인 의미와 이유는, 음악은 교회의 성서적 목적들(scriptural purposes) 가운데 필수적인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찬송과 기도와 말씀). 교회의 사역을 가장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음악 그룹은 교회의 모든 음악 프로그램의 활동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린 성가대입니다. 교회의 젊은 싱어(singers)들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성인 성가대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성인 성가대원들은 가장 영적이고, 충성되며, 그 교회의 음악인들의 철저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활동적인 교회멤버의 10% 정도로 구성되는 것이 효과적인 성인 성가대의 사역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찬양에 있어서 일반 회중보다 한층 더 격조 높은 표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열성적인 회중찬송과 성경교육의 인도자들로서, 그리고 설교와 말씀에 대한 경청의 본보기로서 공중 예배를 위한 지도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회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경말씀과 같이 예배의 올바른 태도를 입증하고 보

여줄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딤후 3:15).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신도로서, 신약의 중요한 만민제사장의 진리를 나타내고 대표할 수 있습니다(벧전 2:9; 히13:15). 자신들의 인도자적인 위치 때문에, 크리스천의 증인과 일상 삶의 양식에 대하여 매우 조심하며 관심을 가지는 핵심 인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각 멤버들을 위한 흔치 않은 영적인 성장과 교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성가대에서의 찬양은 단순히 매주 하나의 새롭고 특별한 곡을 준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재능)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의 특권이며 축복이 맞습니다 —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엄숙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노래와 기쁨의 노래와 함께, 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그들을 다시금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 by Kenneth W. Osbeck, 번역 김영국 목사

◆ 김영국 목사

대광고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전공하였고 척 스윈돌 목사와 그의 음악목사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동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에서 사역했다. 지금은 음악목회연구원을 통해 그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성도의 환대는 변치 말아야 한다: 삼관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백지 한 장 도박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에 대하여 인지할 때 비로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관심은 전부터 있었으나 이런 일 저런 일로 미루다가, 아내와 함께 드디어 집을 나섰다.



한평우 목사

성경에 기록된 '삼관'(Three Taverns) (행 28:15)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이미 그곳에 다녀온 집사님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었던 터라. 수년 전부터 그곳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야 실행하게 된 것을 보니, 살아만 항상 그 무엇에 쫓겨 떠돌아다니는 것 같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도 차일피일 교회가기 미루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빈

번하다. 성경에 나오는 총독 벨릭스처럼 말이다. 삼관은 로마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 받고 싶어 했는데, 그것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행해하던 중 풍랑을 만나 큰 고통을 당하다가, 겨우 구조되어 멜리데에 하선할 수 있었다.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후에 다시 로마로 향하여 나폴리 근교의 보디올 항구에 하선했다. 그리고 기다리던 형제들의 초청을 받아 한 주간을 보낸 후(행 28:14), 아피아 도로를 따라 로마로 갔다. 보디올(현 Pozzuoli)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200Km가 넘는다.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여러 날이 걸렸을 것이다. 드디어 바울은 로마를 50여Km 남겨둔 곳까지 당도했는데, 그 곳에는 삼관이 있었다. 삼관이란 여행객들을 위해 아피아 가도에 지은 세 개의 여관(또는 주막)을 의미한다. 현시대의 펜션과도 비슷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로마 교우들은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환영하려고 삼관까지 마중을 나가 기다렸다. 만난 적이 없었던 바울이지만, 이미 로마 교인들은 서신을 통해 그의 뉘집임을 알고 있었다. 로마서를 통해 전해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탁월한 해석과 선교에 대한 열정은 로마 교인들을 감동케 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 곳까지 마중 나와준 그들의 환영을 통해, 바울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베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행 28:15)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 아피아 길 바로 옆에 있는 호텔(Foro Appio Mansio Hotel)에 들어갔더니, 내부에 로마 시대의 유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혹여가 삼관인가 하여 물어보았더니, 현관에 있는 젊은 아가씨는 삼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이 길로 바울이 지나갔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그래서 집사님께 전화했더니, 그 호텔에서 로마 방향으로 30여미터만 가면 오른 편 길가에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로마를 향해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길가 오른쪽에 오래된 비석이 쓸쓸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글씨는 마모되어 읽을 수 없었지만, 이곳이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만난 장소라는 의미라고 한다. 만약 이곳이 베드로를 환영한 자리였다면 큰 교회를 세워 가리도록 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한 도시에 두 사람의 영웅은 필요하지 않은 듯하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 50여 Km를 마중 나온 로마 교인들, 그들이 서로를 확인한 후 반가움에 께안고 양쪽 불을 비벼대며 인사하던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그 호탕한 웃음소리는 메아리쳐 지금도 이 주변을 맴돌고 있는 듯하다. 이 길은 나폴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남편을 둔 한국인 자매들의 예배를 인도

하기 위해 내가 15년 이상을 수백 번이나 지나다니 더, 바로 그 아피아(Appia) 길이였다. 이제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나다녔던 것이다. '안다'는 것은 무의미한 공간적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 이 되는 것 같다. 삼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라티나(Latina)의 넓은 들녘으로, 로마 시민들에게 온갖 싱싱한 채소를 공급하는 생산지다. 지금도 아피아 양쪽으로 넓은 들이 형성돼 있다. 들녘이 끝나는 곳은 산으로 둘러 있다. 2천 년 전 바울도, 내가 지금 바라보는 산이나 푸른 들녘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과연 바울은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 당했다. 그가 부지런히 사역했던 선교의 여정이 이곳에서 마무리된 셈이다. 그런데 이곳에는 기억해야 할 또 한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있다. 중세의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다. 그는 교황의 명을 받아 프랑스의 주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 길을 가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방대한 지식을 지녔던 석학으로, 『신학대전』을

쓰던 중 하나님을 만난 바 있다. 그 광대한 신성을 경험하고, 그는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이 너무나 송구스러워 붓을 꺾어버렸다. 그래서 그의 『신학대전』은 미완성으로 남고 말았다. 평소 한없이 겸손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한 사람의 남은 발자국을,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에 따라 역사가 기록할 수도 있고 무시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다. 아마 이 길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고, 앞으로도 계속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울을 환영했던 자리에 세워진, 2천 년 전에 존재했던 세 개의 펜션. 하나님의 위대한 중을 품었던 삼관은 지금 빈 자리가 되어 우리 부부를 맞이한다. '너는 이 터 위에 어떤 집을 짓겠느냐고 질문 하는 듯하다. 그곳에서 반질반질하게 닳은 검은 돌 하나를 집었다. 바울이 디뎠을지도 모르는 돌조각이라고 여기며 말이다. 손에 있는 그 돌조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과연 어떤 자국을 이 땅 위에 남기게 될까?'

◆ 한평우 목사

로마 한인 교회 담임목사로 35년째 시무하시고, EMI 유럽 목회자 연구원 창립 및 원장, 유럽 Koste 후원회장, 디모데 선교회 회장 및 디모데 로마 선교 아카데미 학장을 맡고 있다.

신앙한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구현모(KOO)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Dream, Universe & Love

2024. 10. 25.(금) — 2025. 2. 28.(금)

송파구 (사)잠실관광특구협의회 LOTTE WORLD TOWER

